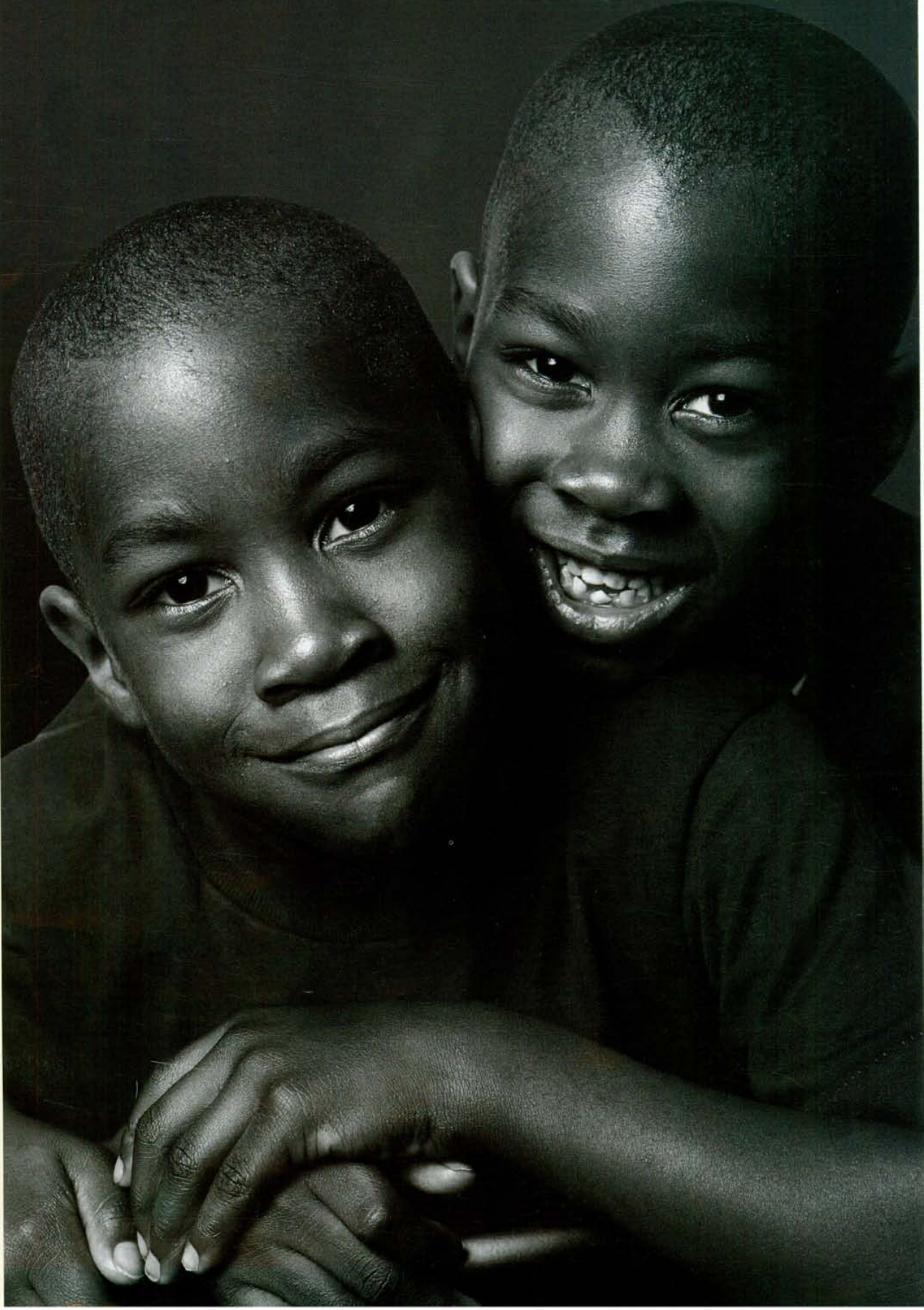


리아호나

말레이시아 예수 그리스도 교회 · 별책부록: 친구들 · 1999년 11월호



어린이



표지

앞: 침십인 정원희의 제이 켄슨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어린이들은 흠 없고 무죄하고 순수한 상태에서 이 세상으로 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와 복음", 14쪽 참조. 뒤: 그림: 델 파슨, 그리스도와 물문경 어린이들.

친구들 표지

사진 촬영: 크레이그 다이몬드

일반

- 2 대관장단 메시지: 인생 항로의 안전한 여행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8 말일성도의 소리: 기적의 하나님
- 12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 고든 비 헝클리 대관장
- 14 어린이와 복음 제이 이 켄슨 장로
- 25 방문 교육 메시지: 사랑의 끈으로 둘러쌌
- 32 아르헨티나의 밝고 즐거운 날 주디시 올슨
- 42 절제는 어떻습니까? 로버트 레이튼

청소년란

- 26 질의 응답: 용서 받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 29 보다 중요한 교훈 에리카 디하트
- 30 "내가 약속하노니..." 리나 제이 카터
- 44 먼저 도움 리처드 엠 홈니
- 48 배움의 보상 대린 리스고우

32쪽 참조



친구들(별책 부록)

- 2 친구가 친구에게: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 4 함께 나누는 시간: 주가 주신 복을 세어라 시드니 에스 레이놀즈
- 6 이야기: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제인 다이오스트라
- 8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음 진 엘라벡
- 10 결코 혼자가 아님 앤 미셸 날슨
- 13 감사 표현하기 휴 더블류 피복크 장로
- 14 보물 비버안 폴슨
- 16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 노력함: "멈추어라!" 비버라 진 존스



친구들, 2쪽 참조



14쪽 참조

리아호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임.

대판장단: 고든 비 힐글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십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톨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발라드, 조셉 비 워스린, 리처드 지 스킵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머링
편집인: 말린 케이 켄슨
고문: 제이 이 켄슨, 존 엘 매드슨
교과 과정부 관리자:
관리 책임자: 로날드 엘 나이튼
편집 책임자: 리처드 엠 톰니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편집 스태프: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알 발 존슨
부편집인: 로저 테리
편집인 보조: 제니퍼 그린우드
편집/제작 부장: 베스 테일러
출판 보조: 코니 셰익스피어
편집 보조: 래너 케이 카터
디자인 스태프:
잡지 그래픽 부장: 엘 엘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킵트 벤 캠펀
선일 디자이너: 새리 쿡
디자이너: 태드 알 피터슨
제작 부장: 세인 앤 피터스
생산: 래지날드 케이 크리스티슨, 데니즈 커비, 제이슨 엘 엠포드, 디나 엘 소렌슨
디지털 교정 인쇄: 제프 마틴
구독 담당 스태프:
책임자: 케이 더블류 브릭스
배부 부장: 크리스 크리스티슨
부장: 조이스 썬슨

통 권: 제404호, 제36권, 제11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1999년 11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한삼익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삼립 인쇄 주식회사 김현수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의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1,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27,0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5,4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37,2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 센터(☎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을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International magazine, 50 East North Temple, Floor 25,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또는 E-mail, CUR-Liahona-IMag@ldschurch.org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 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알바니아어, 불가리아어, 세부어, 중국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에스토니아어, 피지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히브리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키리바시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노르웨이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사모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타이어, 통가어, 우크라이나어, 베트남어 (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1999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November 1999 No.11.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기사 "십계명"에 감사를 포함

지난해(1998년)에 읽은 십계명에 관한 훌륭한 기사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 회 그 기사는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특정한 계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속에 담긴 통찰이 얼마나 깊고 넓은 것인가도 보여 주었습니다. 기사를 쓴 분들 모두 자신의 지식을 우리에게 가까이 나누어 주고자 한 뜻에 감사를 표합니다. 연재된 십계명 기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조금씩 "지혜와 지식"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에스더 호프 바우어
오스트리아 비엔나 스테이크
비엔나 제3와드

**언제나 복극성과 같은
안내자 역할을 하는 지침서**

우리는 교회에 들어온 지 24년(1975년 1월 10일 이후) 된 회원 가족으로서, 역사가 오래지는 않지만 발전하고 있는 시라쿠사 지부에서 맨 처음 침례받은 가족입니다.

라 스텔라 잡지는 우리가 1975년부터 현재까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신, 교회, 행복의 계획 등에 관한 지식을 얻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습니다. 라 스텔라를 처음에는 서너 페이지에 몇 장의 사진과 도표로 구성된 잡지였으나 그후 크기, 두께, 지면 추가 등 체제 변경을 거듭해 온 끝에 오늘날에는 과거 어느때보다 아름답고 매력있는 잡지로 변모했습니다.

이 잡지가 시각적 구성 면에서는 크게 달라졌지만 (내용면에서는)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

습니다. 그것은 라 스텔라 잡지의 내용이, 기사를 쓴 분들이 예언자이든 사도이든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든 관계없이 심오하고도 경이로운 기사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라 스텔라를 현재 우리에게 계시, 지시, 영감, 사색, 연구 등 각종 자료의 출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언제나 그러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대판장단, 십이사도 정원회, 그리고 언제나 복극성과 같은 안내자 역할을 하는 지침서이자 계몽지인 라 스텔라 편집자 일동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로베르트 이 기오바나 마리오
이탈리아 카타니아 지방부
시라쿠사 제1지부

**최상의 선물은
리아호나를 구독 예약하는 것임**

리아호나 잡지를 읽을 때마다 제가 제일 먼저 찾은 부분은 대판장단 메시지입니다. 리아호나를 통해서 우리가 예언자의 지혜의 말씀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된 일입니다.

예언자의 지혜의 말씀은 저의 개인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가족들과 함께 갖는 가정의 밤에서 예언자의 지혜의 말씀을 실천해 왔습니다. 오늘날 하늘의 축복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예언자의 지혜의 말씀이 가져오는 영을 느낄 수 있고 마음에 행복을 느낍니다. 제가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그들을 위한 리아호나 잡지를 구독 예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친구들 역시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리아호나는 우리의 영혼에 활력을 불어 넣는 잡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앤지 헤라리아
에과도르 파스쿠아레즈 구와야퀼 스테이크
홀로델베스치온 와드



인생 항로의 안전한 항해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주님의 등대는 인생의 바다를 항해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신호를 보내 줍니다. 우리가 돌아갈 항구는 하나님의 해의 왕국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 진로에서 벗어나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1939년 2월 14일 미국인들은 발렌타인 데이를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우편 배달부들은 편지를 날라다 주고 어린아이들은 예쁜 그림이 그려진 종이를 접어 특별히 좋아하는 친구의 집 앞에 놓아 두었습니다. 편지나 종이마다 인사말과 사랑을 전하는 말이 들어 있었습니다. 발렌타인 데이는 사랑을 전하는 날입니다.

미국에서 멀리 떨어진 독일의 함부르크에서도 역시 공휴일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음침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열렬한 연설과 환호하는 군중과 국가가 연주되는 가운데 새로운 전함 비스마르크 호가 엘베 강으로 진수되었습니다. 가장 막강한 이 전함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쟁 무기로 위협을 가했습니다.

거대한 전함은 숨막힐 듯한 막강한 무기와 기계로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군함을 건조하는 데에는 3층 포탑과 레이더 조정포에 대한 406밀리미터 청사진이 5만 7천장 이상이나 필요했습니다. 군함은 4만 5천 킬로미터의 전기 회로로 이루어졌으며, 3만 5천 톤의 장갑판으로 된 최대의 안전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위풍도 당당한데다 규모도 거대했

으며 무력이 엄청난 비스마르크 호는 무적 함대로 도저히 침몰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년 여 뒤인 1941년 5월 24일 영국 해군에서 가장 강력한 전함인 프린스 어브 웨일즈 호와 후드 호가 비스마르크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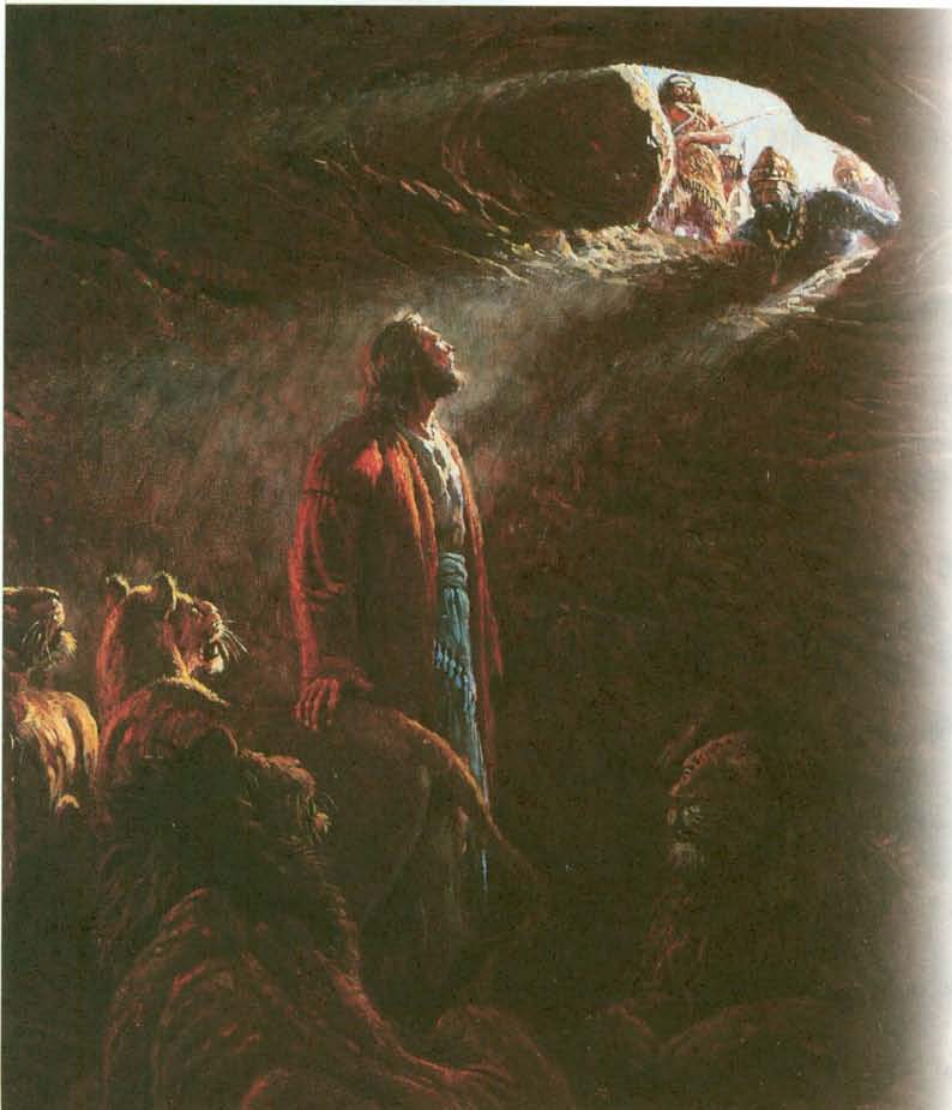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뜰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설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와 독일의 순양함 프린츠 유겐 호와의 접전을 벌인 끝에 비스마르크 호의 운명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4분 뒤에 비스마르크 호는 후드 호와 1,419명의 수병 중에서 단 3명을 제외한 전원을 대서양 바다 깊은 곳에 가라앉혀 버렸습니다. 다른 영국 전함인 프린스 어브 웨일즈 호도 크게 손상을 입고 물러섰습니다. (결국 영국측은 무적 함대 비스마르크 호를 격침시키려고 전함 8척, 공군 비행기 2대, 순양함 11척, 구축함 21척을 동원했습니다.)

3일 후인 5월 27일 비스마르크 호는 다시 전투에 참여하여 영국 전함 4척과 맞섰습니다. 포탄을 계속 맞아도 피해는 경미할 뿐

이었습니다. 조금만 나아가면 독일의 막강한 공군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전한 고국의 항구도 지척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스마르크 호는 항로를 나아갈 능력을 잃었으므로 그 어느것도 절실한 피난처가 될 수 없었습니다. 키가 없어지자 도움도, 항구도 쓸모가 없었던 것입니다. 종말이 가까웠습니다. 영국의 포탄이 불을 뿜어대자 독일 수병들은 허둥대며 도망치고 한때 위용을 자랑하던 군함은 가라앉았습니다. 대서양의 굽주린 파도가 한쪽으로 철썩이더니 독일 해군의 자랑거리를 한숨에 삼켜 버렸습니다. 비스마르크 호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어빙, 히틀러의 전쟁 (1977년) 참조)

비스마르크 호와 같이 우리 각자는 놀라운 기계 공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된 것은 인간적인 능력으로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복잡한 기계라도 고안해 낼 수는 있으나, 기계에 생명을 불어 넣거나 이성이나 판단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 주어지고 신의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께서는 우리에게 순환 계통을 주셔서 모든 혈관이 깨끗하게 하시고, 소화 계통



으로는 힘과 활기를 얻게 하시고, 신경 계통으로는 몸의 각 부분에 전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으며 그와 더불어 생각하고, 사고하고, 결정하고 사랑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배에서 키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듯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방법이 주어졌습니다. 주님의 등대는 인생의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신호를 보내 줍니다. 우리가 돌아갈 항구는 하나님의 해의 왕국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 진로에서 벗어나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키를 잃은 배와 같이 결코 고향의 항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호가 보내집니다. 항로를 그려 키를 잡고 향해하여 나아가십시오.

배에서와 같이, 사람도 그러합니다. 터빈의 추진력이나 프로펠라가 내는 힘은 방향 감각을 잃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비록 눈에 띄이지 않고 규모도 비교적 작지만 에너지의 동력을 이끌어 나가는 키는 그 기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향해하는 항해사들을 인도하기 위해 해와 달과 별과 하늘의 은하수를 마련하셨습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 나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걸걸이나 함정과 닻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십니다. 여기저기에 죄를 지으며,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영악한 사람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속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우리 영혼 속 깊이 말씀해 주시는 구세주의 부드러운 권유의 말씀, "와서 나를 좇으라" (누가복음 18:22)는 고요한 조그마한 음성(교리와 성약 85:6 참조)에 귀기울이십시오. 우리는 파멸과 죽음으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는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찾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며 다른 장단의 박자에 귀기울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중 가장 손꼽히는 자는 이브에게서 태어난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있었습니다. 강한 능력을 지녔으나 의지가 박약한 가인은 욕심과 질투심과 불순종으로 가득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질러 자신을 안전하게 승영으로 인도할 개인적인 키를 못쓰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모세서 5:16~41)

그보다는 덜 알려졌지만 오늘날의 보다 전형적인 인물로 율지 추기경이 있습니다. 율리암 셰익스피어의 펜에서 쏟아져 나온 수많은 걸작 중에서도 율지 추기경은 권력의 최고봉에 오른 인물입니다. 그 펜이 쓴 작품들은 원리 원칙이 헛된 야망과 편의주의와 극성스런 편애에 의해 어떻게 침식당했는가를 말해 줍니다. 그리고 한때 모든 것을 얻었다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고통스런 탄식과 함께 비극적인 몰락을 맞게 됩니다. 그것은 경전에 버금갈 정도로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율지 추기경은 충실한 심복 크롬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망각되거든, 얼마 안 있다가 망각될 것이니,

그래서 내가 둔하고도 차디찬 대리석 속에서 잠을 자게 되거든, 그때엔 아무도 내 말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니.

그렇게 되거든 내가 이렇게 자네한테 일러주더라고 말해 주게.

알겠나? 이 율지는 한때 영광의 길을 걸어

명예란 바다의 깊은 물도 얕은 물도 측량할 대로 측량한.

이 율지가 파선을 당해 가지고, 자기는 확실하고 안전한 출세를 오리무증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지만 자네에게는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

즉 나의 몰락을, 내가 파멸된 까닭을 주의해서 살펴보기만 하면 되네...

야심을 버려야 해.

그 죄로 해서 천사도 추락한다 하거든 하물며 인간이 어떻게... 조물주의 초상에 불과한 인간이 어떻게 야심을 갖고 성공하길 바랄 수 있겠나?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최후로 돌리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끔찍이 여기도록 하게...

나의 전 재산을 한푼도 남김없이 목록을 만들어 주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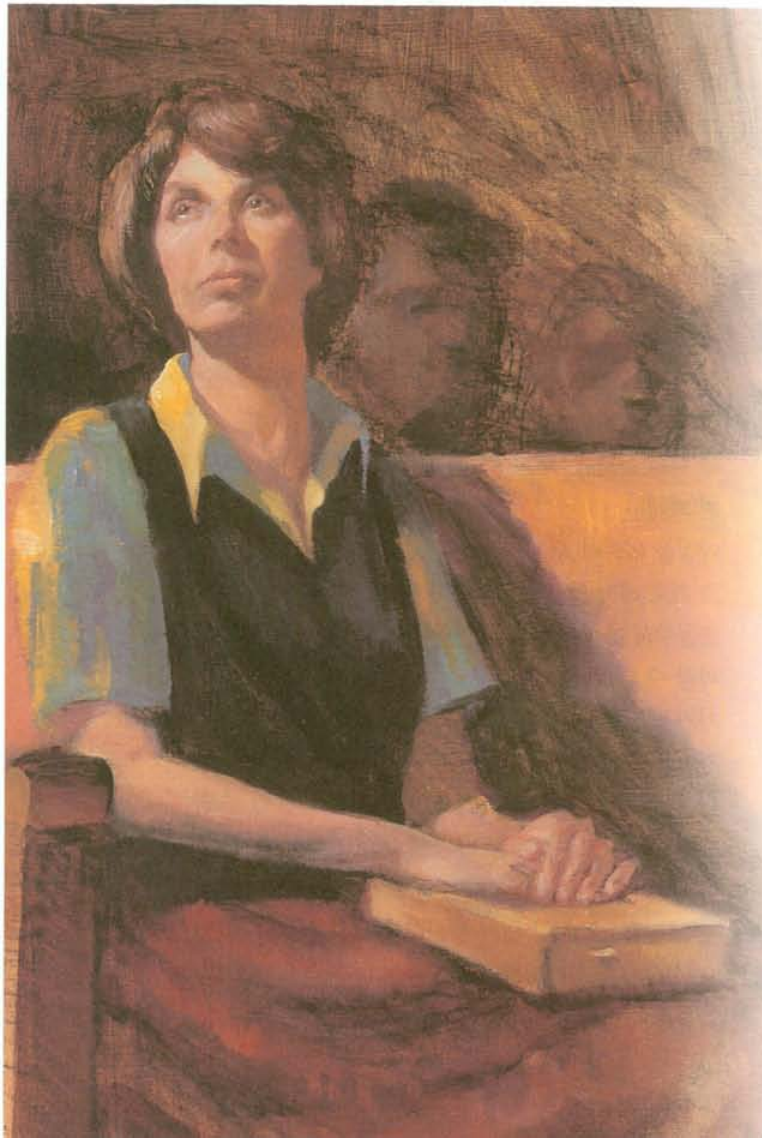
모두 왕의 소유야. 지금 나의 소유라고 감히 부를 수 있는 것은 내가 입은 옷과 하늘에 대한 고결한 마음뿐이야.

오 크롬웰, 크롬웰! 내가 왕한테 봉사한 열성의 절반만큼이라도 신한테 봉사했다라면, 신께서는 나를 늪에 벌거벗겨서 적한테 내던져 주시지는 않았을 거야.

(헨리 8세, 3막 2장, 셰익스피어 전쟁, 제2권, 정음사, 626~627 쪽)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었을 천국의 키가 권세를 추구하고 지

나는 스테이크 부장과 함께 연단에 앉아 있었는데 이상하게 관심이 본능적으로 예배당 동편으로 쏠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앞줄 의자에 혼자 앉아 있는 사람에게 비쳤습니다.



위를 좇다가 망가졌습니다. 그 앞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나 그 후에 올 다른 많은 사람들과 같이 월지 추기경은 쓰러졌습니다.

오래 전에 하나님의 어느 종이 사악한 왕에게서 시험을 받았 습니다. 다윗의 자손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벽에 기록 된 것을 왕에게 해석해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보답으로 왕의 자 주 옷과 금 사슬 목걸이를 제의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의 예 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 서”(다니엘 5:17)

벨사살 왕의 후계자인 다리오 왕 역시 다니엘을 존경하여 최 고봉의 권좌에 승격시켰습니다. 그러자 일반 대중의 질서와 왕자 들의 시기, 야심가들의 모략이 뒤따랐습니다.

아침꾼들의 책략에 빠진 다리오 왕은 누구든지 왕 이외에 신 이나 사람에게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지게 한다는 금령에 서 명하고(다니엘 6:7 참조) 공포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법을 알고 서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의 지침은 왕에게서 온 것이 아 니라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그가 매일 기도드린다는 사실이 발 각되어 다니엘은 왕 앞에 끌려갔습니다. 왕은 하는 수 없이 벌줄 것을 선포하였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형벌이 집행 된 것입니다. 나는 다음 성구를 좋아합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침수를 폐하니 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 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 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 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셨사오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올 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 님을 의뢰함이었더라”(다니엘 6:18~23)

결정적으로 위급한 시기에 다니엘은 방향을 잃지 않고 탄탄 대

로를 나아가기로 결심하여 거룩하신 분의 보호를 받고 안전한 곳으로 들어섰습니다.

역사의 흐름은 모래시계의 모래와 같이 시간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인생의 무대에는 새로운 “배우”들이 속속 등장합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점들이 우리의 앞길을 음울하게 비쳐 줍니다. 복잡한 현대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지혜롭고 합당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확실하고 올바른 방향을 위해 하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분은 우리의 진실한 청원에 응답을 주시지 않은 채 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몇 년 전에 생각지 않던 놀라운 임무를 맡고서 이 교훈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뉴질랜드에 장기간 부임하도록 명을 받고 떠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당시의 미국 소년단 물몬 관계 책임자인 포크맨 디 브라운 씨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홀로 된 누나 벨바 존스가 암에 걸려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먼 나라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차마 자신이 암으로 죽게 되었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거의 탄원에 가까운 그녀의 소원은 아들이 그대로 선교 지역에 남아서 충실하게 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반응이 염려되었습니다. 선교사인 라이언 존스 장로는 1년 전에 같은 질병으로 아버지를 잃었던 것입니다.

나는 꼭 그를 만나 이야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장엄하고도 아름다운 뉴질랜드 성전에서 열린 선교사 모임이 끝난 뒤에 개인적으로 존스 장로와 만나 될 수 있는 대로 부드럽게 그의 어머니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존스 장로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 내렸습니다. 우리는 서로 맹세의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선교 사업을 그대로 하겠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려 주십시오. 저는 열심히 기도를 하겠고 다시 어머니를 뵈게 될 것이라고 전해 주십시오.”

나는 솔트레이크시티로 돌아와서 곧 아이다호 주 무어의 로스트리버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나는 스테이크 부장과 함께 연단에 앉아 있었는데 이상하게 관심이 본능적으로 예배당 동편으로 쏠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앞줄 의자에 혼자 앉아 있는 사람에게 비쳤습니다. 나는 스테이크 부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햇살을 받고 있는 저 자매님이 누구지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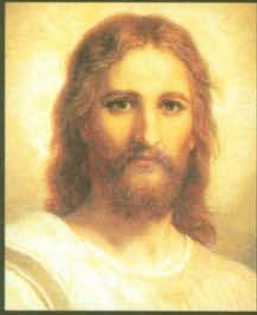
습니다. “벨바 존스 자매님입니다. 저 자매님의 아들은 뉴질랜드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자매님은 증병을 앓고 있으므로 축복을 요청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전까지만 해도 나는 벨바 존스 자매가 어디 살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주말에 내가 지명받은 것은 50개 스테이크 중 한 스테이크를 방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방법으로 행하시는 주님은 관심을 가지신 어머니의 신앙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존스 자매와 나는 기쁘게 함께 만났습니다. 나는 그녀의 아들 라이언의 결심과 반응을 한 마디도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축복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증거를 받았습니다. 벨바 존스 자매는 살아생전에 아들이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환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자매는 그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에 아들 라이언은 선교 사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인생 항로를 향해할 때 안전하게 항해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는 신앙의 키가 인도하는 항로를 올바르게 나아갈 때 안전하게 본향을 찾게 될 것입니다. “바다에서 돌아오는 본향, 선원의 본향”(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만가) 가족과 친구가 있는 본향, 하늘의 본향, 하나님이 계시는 본향을 향해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인생의 목적이 없는 사람은 키를 잃은 배와 같이 결코 고향의 항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2. 우리가 돌아갈 항구인 해의 왕국으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나아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방법이 주어졌습니다.
3. 인생의 길을 걸어 나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결길이나 함정과 덫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십니다. 속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4. 기도하기 위해 시간을 내며 “와서 나를 좇으라”(누가복음 18:22)는 구세주의 부드러운 권유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전세계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들은
일상 생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 축복받고 있다.
회원들 가운데는 병고침이나
시현과 같은 극적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 주는 단순하고도
조용한 증거를 경험하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많다.

기적의

주님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는 내가 하나님이며 나의 팔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음이니, 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기적과 표적과 기이한 일을 보여 주리라.” (교리와 성약 35:8)

주님께서는 그분을 믿는 충실한 자들에게는 그분의 권세를 나타내 보이신다. 스페인 마드리드 출신의 알레안드라 브라이 오네즈 파라 자매는 이를 뒷받침해 주는 사례를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어느 날 저의 여동생이 몹시 앓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드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제 동생을 축복해 주시고 저에게 힘과 평안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이렇게 기도를 하니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무 일 없을 것이라는 느낌이 솟아 오르더군요. 저는 방을 들어 갈 때는 고녀의 눈물을 머금었는데 나올 때에는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되었어요. 저는 그때 모든 일이 잘될 거라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고 위로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몹시 바라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세계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들은 일상 생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 축복받고 있다. 회원들 가운데는 병고침이나 시현과 같은 극적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알레안드라

자매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 주는 단순하고도 조용한 증거를 경험하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많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교회 회원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며 사랑하시는가를 보여 주는 사례들이다.

진리를 증거함

요엘 코로나도 무오즈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 두 명의 선교사가 에콰도르에 있는 우리 집을 방문했다. 그들의 외모와 친절에 좋은 인상을 받은 나는 그들의 메시지를 듣기로 했다. 듣고 보니 선교사들의 메시지는 매우 흥미로웠다. 그 한편으로 나에게 약간의 의문이 들었다. 그 후 나는 매번 선교사들과의 모임에서 약속한 대로 물론경 독서 과제를 끝마쳤고 기도를 해보라는 권고도 받아들였다.

여섯 개 공과를 끝마쳤을 때 선교사들은 나에게 침례받을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일들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으나 아직 응답을 받았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나는 천사를 보기를 기대했고 금판이나 그 밖의 하늘의 시현을 보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나는 당시 교회의 대관장이었던 에스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에 관한 기사를 읽고 있었다. 그때 내게는 그 분이 정말 예언자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은 강한 욕구가 생겼다. 이전 시현을 보는 것은 바라

하 나 님

지도 않고 단지 그 분이 예언자라는 사실을 알려 주는 증거를 얻기 원했다. 그래서 나는 기도를 했다. 얼마 동안 지나자 몸을 깨우는 듯한 조용한 음성이 나에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이 예언자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그때 나는 가슴속에 타는 듯한 깊은 감동을 느꼈다.

나는 증거를 받은 것이다.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가 아니라 작고 조용한 소리를 통해서 받은 것이었다. 증거를 받은 후 나는 커다란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침례 권유를 받아들였다.

시련을 견뎌

비탈리시오 곤잘레스

나와 나의 아내 마리아는 1978년에 침례를 받았다. 우리는 참된 교회에서 큰 행복을 발견했다. 1986년에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성전에 가서 세 아이와 함께 영원한 가족 인봉도 받을 수 있었다.

1988년 아내 마리아가 네 번째 아이를 임신했다. 그러고 나서 곧 몸의 상태가 몹시 나빠졌다. 그래서 우리는 아내와 태아가 잘못되거나 앓을까 걱정하게 되었다. 처음에 우리는 마리아가 유산으로 고통받는 것이 아닌가 걱정했는데 의사가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말해 일단 안심했다. 하지만 마리아의 건강은 계속 악화되

어 갔다. 하루는 아내가 자기는 세상을 떠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실은 나 역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런 것은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위로했다.

9월에 아내의 정기 검진을 위해서 병원에 갔다. 의사는 마리아를 입원시키라고 했다. 입원하고 얼마 안 있어 우리의 새로운 딸아이가 태어났다. 1개월 조산이었다. 아기의 호흡기 계통에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녀의 탄생은 기적이었다.

하지만 아내는 심한 합병증을 앓아 출산 후 두 번이나 수술을 받아야 했다. 신권 축복을 받아 건강이 크

게 호전되는 듯하더니 한 달 후 다시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우리의 15주년 결혼 기념일에 마리아와 나는 경전을 함께 읽었다. 아내는 복음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나에게 전해 주었고 아이들을 잘 보살피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호흡에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더니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것이었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아 주님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망감을 느꼈다. 나는 의문을 품었다.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젊을 때 데려가시나? 우리는 왜 (이렇게 일



찍) 헤어져야 하나?"

지부의 회원 서너 명이 찾아왔고 우리는 함께 마리아에게 축복을 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지금은 기억할 수 없지만 어쨌든 축복이 끝났을 때 나는 절망감이 사라지고 침착을 되찾았다. 아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자 커다란 평온의 느낌이 나를 덮쳤다. 그리고 한 부드러운 음성이 우리가 성전에서 인봉 의식을 받을 때 맺었던 성약을 기억하라고 속삭였다. 나는 아내를 다시 만나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하나님께서 성신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과 위안을 전하신다는 것을 간증한다.

그분은 실제로 기적을 행하신다.

"레오나드가 물에 빠졌어!"

커스틴 새휘(이 글은 버지타 스트랜드버그에게 전해진 말을 그대로 실은 것임)

남편의 누이 릴리와 릴리의 남편 로버트는 두 자녀를 데리고 미국에서 스웨덴에 있는 우리를 만나러 왔다. 나는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싶었고, 결국 우리는 물놀이 공원에서 오후 한나절을 보내기로 했다. 나는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어른이 네 명이나 있으니 물놀이는 안전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다섯 살짜리 아들 레오나드를 누가 보살필 것이냐에 대해선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 같다. 레오

나드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우리는 미친듯이 그 아이를 찾아 다녔다. 갑자기 나의 남편 헨리가 "레오나드가 물에 빠졌어!" 하고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러자 잘 훈련된 수영 구조원인 릴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어 풀장 바닥에 있는 레오나드를 끌어올렸다. 그리고 나서 즉시 인공호흡을 시작했다.

나는 일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리고 아들을 살려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다. 그렇게 정신없는 와중에 남편 헨리는 레오나드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했다. 짧은 축복이었지만 축복 동안 내 마음속에는 타는 듯한 어떤 느낌이 찾아 들었다. 무어라 형언할 수는 없지만 나는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 것이라



심심한 인생의 단상

는 것을 알았다. 아무튼 내가 신앙을 행사한다면 일은 잘될 거라는 것을 알았다. 헨리의 축복이 끝나자 레오나드가 한차레 호흡을 했다.

구급차가 와서 레오나드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아들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의사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면 뇌에 손상이 있을 것 같다고 알려 주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뜻이라면 아들이 회복될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신앙을 갖는 일에 나는 온 정신을 집중했다.

그로부터 이틀 후 레오나드는 깨어났다.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지만 건강해 보였다. 안도감, 행복감, 감사의 느낌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우리는 신권의 권능을 통해서, 그리고 신앙을 행사함으로써 기적 같은 축복을 받은 것이었다.

주님을 신뢰함

에스티타 에이취 폰스

나의 남편의 직업은 가구를 제작하는 일이었다. 필리핀에서 일자리를 구하기란 어려운 일이었지만 주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

우리의 수입이 아주 보잘것없던 시절의 어느 날 남편은 테이블과 의자를 제작하는 한 가구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나는 근무 시간에 남편을 찾아가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남편은 저녁에 퇴근 후 시장에서 만나자고 대답했다. 그는 저녁에 먹을 약간의 쌀을 사기 위해 공장 주인에게 선불을 부탁할 작정이었던 것이다.

그날 오후 우리는 시장에서 만났다. 남편은 50 페소를 선불로 받았다고 말했다. 50 페소는 우리가 겨우 쌀을 조금 살 수 있

는 돈이었다. 그런데 쌀값을 치르려고 남편이 호주머니에 손을 넣자 있어야 할 돈이 없었다. 우리는 가구 공장으로 돌아가 잃어버린 돈을 찾아보았으나 그 돈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돈도 식품도 없이 집으로 가는 동안 남편은 실의에 빠져 화를 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하자고 하며 남편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날 밤 나는 잃어버린 돈을 찾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했다.

다음날 아침이었다. 남편과 함께 현관문을 나서던 딸 제니린이 현관의 계단 위에 무언가 있는 것을 보았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그 50페소였다. 나는 너무도 기뻐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신 데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다. 나는 우리가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한다면 그분은 자비심이 많으시므로 우리에게 동정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베니타를 위해 기도함

요셉 에이 마티노우

과테말라에서 선교사 임무를 수행하던 어느 토요일, 나와 나의 동반자는 베니타 자매를 방문하기로 했다. 베니타와 그녀의 남편 이사야는 충실한 말일성도 교회 회원이었다. 이사야 형제는 가족 부양을 위해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있었고, 베니타 자매는 남편의 수고를 덜어 주기 위해 닭을 길러 닭과 계란을 내다 팔곤 했다.

베니타의 집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자매의 마음이 크게 상해 있음을 눈치챘다. 베니타는 그녀의 남편이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로 일하러 간 후 집에서 키

우던 닭들이 전부 병들어 버리고 그나마 한 마리는 이미 죽었다고 상심한 이유를 설명했다. 베니타 자매는 닭들이 없으면 가족들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실망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우리는 베니타 자매를 위로해 보려고 찬송가를 부르고 간증을 나누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기도하자고 제의했다. 이렇게 제의하자 베니타 자매는 기뻐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집 병아리들을 축복해 달라고 나에게 부탁했다. 나는 그녀의 요청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기도의 주제로 병아리를 생각해 본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때 나에게 "너희의 양떼를 위해 기도하" (엘마서 34:20)라는 엠올레크의 훈계가 떠올랐다. 나는 베니타 자매의 병아리들이 곧 그녀의 양떼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기도했다. 베니타 자매의 남편은 출타중이라 지금 없고, 이 자매의 집 병아리들 중 한 마리가 죽었으며, 나머지 병아리들마저 모두 병들었으나 베니타 자매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하고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다. 그리고 베니타 자매가 지금 몹시 가슴 아파하고 있사오니 베니타 자매의 병아리들을 축복해 달라고 간구했다. 기도가 끝난 후 베니타 자매는 방문해 주어서 고맙다고 인사했고 우리는 그녀의 집을 떠났다.

그 다음날 교회에서 베니타 자매는 병아리들이 모두 건강해졌다고 알려 주었다. 베니타 자매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교육

“주께서는 우리에게 연구하고 배우라고 명하셨습니다. 즉, 연구와 신앙으로써 지식을 습득하며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것에 대한 지식도 습득하라고 명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88:118 참조)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일은 그것이 무엇 이든지 하지 마십시오. 교육을 받는 일은 여러분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합니다. 교육은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입 니다. 여러분이 이 열쇠를 얻을 경우, 세상은 여러분을 축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인정하는 정도에 따라 여러분에게 보 상도 해줄 것입니다.” (1998년 8월 5일, 캐나다 온타리오 오타와 모임에서)

가정

“저는 부모 되는 여러분이 매일같이 자녀들과 함께 무릎꿇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글을 읽어 주고 경전을 읽어 주십시오. 어린이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영원히 그들의 삶에 축복이 될 어떤 느낌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정의 밤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들을 주위에 끌어 모아 함께 노래하고,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기

를 바랍니다.” (1998년 8월 1일, 캐나다 브리티쉬 콜럼비아 프린스 조지 모임에서)

성신

“우리는 성령의 속삭임을 어떻게 인식 할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을 덕으로 인도해 줍니다. 덕으로 인도해 주는 이 느낌을 가질 때 우리는 성령, 곧 성신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가짐으로 있을 때, 즉 성신의 지시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가짐으로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조금도 의 심하지 않습니다.” (1998년 8월 5일, 캐나다 온타리오 오타와 모임에서)

선교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서신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 하리라 (디모데전서 54:16)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 삼가 주의를 기울일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

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업과 관련하여 올바른 일을 행하고 올바른 일을 믿고 올바른 일을 가르칠 때 비로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 모두를 구원하게 됩니다. 이 밖에 구원받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가족들입니다. 선한 마음과 위대한 정신으로 나아가는 선교사들은 누구나 자신과 자신이 가르치는 사람 모두를 구원할 것이고, 또한 뒤에 남겨 두고 온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무엇인가 좋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 삼가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1998년 8월 8일, 캐나다 온타리오 해밀턴에서 열린 선교사 모임에서)

선교 사업

“청남들은 선교사로 나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청남들은 선교사가 되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복음을 가르치게 될 일에 자신의 수입의 10분의 1을 바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청녀들은 청남들과 똑같은 의무를 지니지는 않습니다. 청녀들은 그러한 의무를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교사업을 하러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지역 교회 관리 지도자들인 감독 및 스테이크 부장과 상의하여 그 분들의 권고를 듣고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998년 8월 5일, 캐나다 온타리오 오타와 모임에서)

신권 소유자들

“(주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처신하기를 기대하실까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순결하며, 인자하고 유덕하며, 모든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기를 기대하십니다. (신앙개조 1:13 참조)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아내에게 친절하고 이해심 많은 남편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자녀를 친절과 사랑으로 양육하는, 인자하고 부드러운 아버지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아내를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녀를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신권 소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내와 자녀를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의 거룩한 신권 소유자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스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말할 권능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위대하고도 성스런

의무에 성실하기를 축복하십니다.” (1998년 8월 1일, 캐나다 브리티컬럼비아 밴쿠버 모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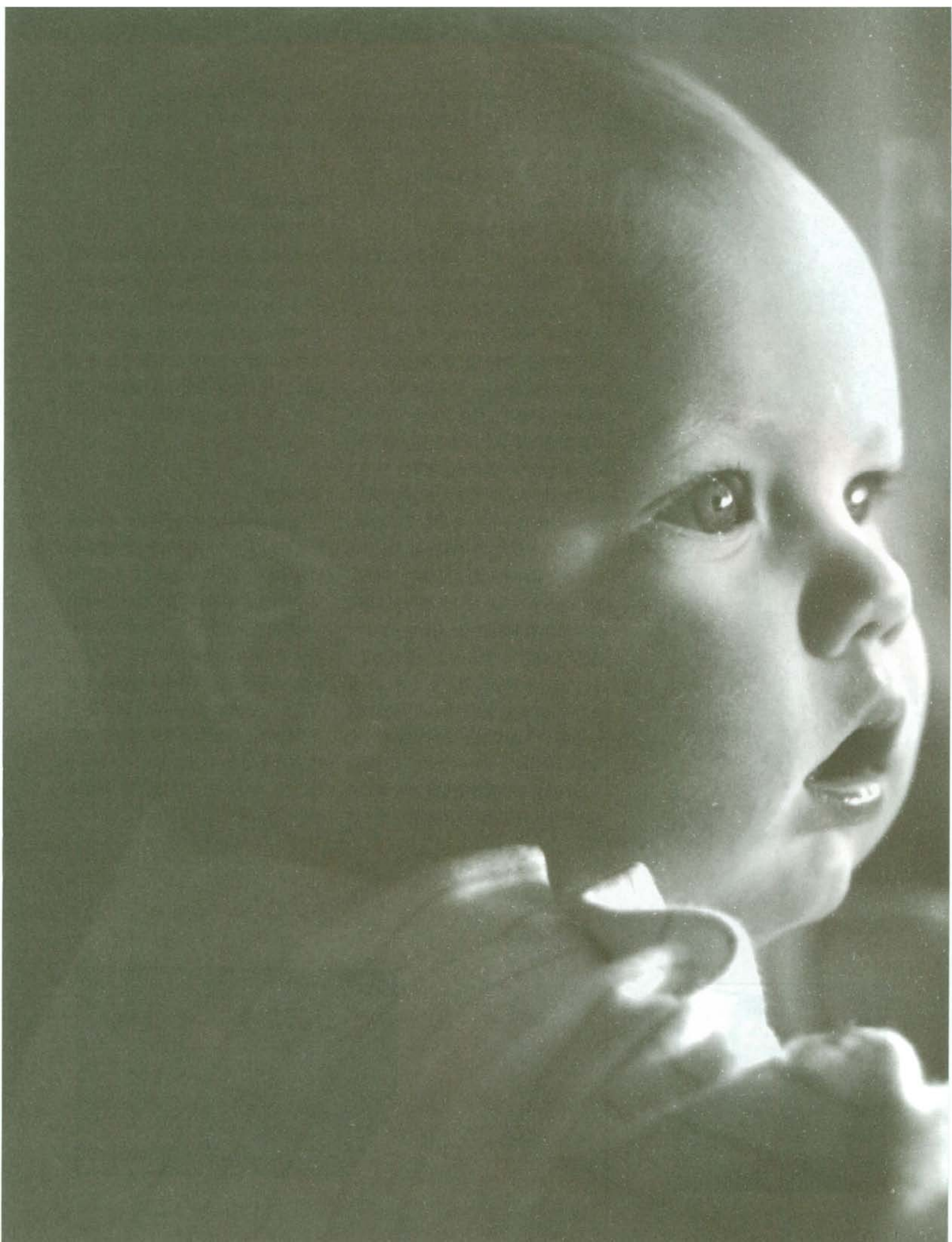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단순히 주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하나의 계명이나를 놓고 사람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거기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저에게는 주님의 말씀은 곧 계명이 됩니다. 저는 우리가 지혜의 말씀이라는 놀라운 보화를 갖게 된 데 대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1998년 7월 31일, 캐나다 브리티컬럼비아 빅토리아 모임에서)

성인 자매

“성인 자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처신을 어떻게 하기를 기대하실까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말일성도로서 유덕하고 진실하고 친절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자녀를 의로움과 진리로 양육하는 어머니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남편에게 친절하고 상냥하고 선한 아내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가정에 행복이 없다면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1998년 8월 1일, 캐나다 브리티컬럼비아 밴쿠버 모임에서) □





어린이와 복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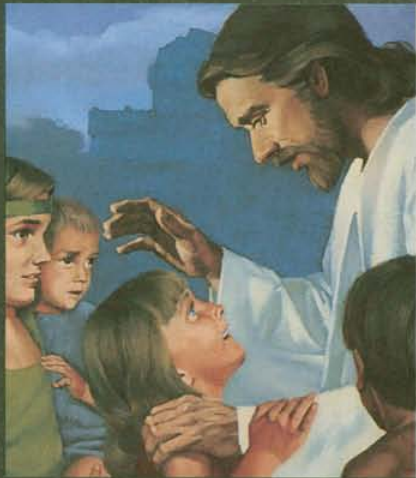
그림: 뉘 파슨, 어린이들과 함께 계신 그리스도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귀중한 존재입니까? 어린 아이들은 사랑스럽고 무척하며 온유하고 정직하며, 유쾌하고 순종적이며, 낙관적이고 순수하며, 그 밖의 많은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모범으로 제시하신 모든 것입니다.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마태복음 19:14)

철십인, 제이 이 젠슨 장로

경전에서 특별히 중점을 두는 것은 가족입니다. 구약은 아담과 이브와 그 자녀들의 이야기로 시작되며, 신약의 사복음서 가운데 셋은 예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물론경에서도 “나 니파이는 홀륭하신 부모님에게서 태어나”라고 기록된 니파이일서 1장 1절이나 “나의 아들이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믿으라.”(모로나이 9:25)고 물론이 모로나이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에 나타나 있듯이 부모와 자녀와 가족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때가 찬경륜의 시대는 소년 예언자 요셉 스미스 2세와 사랑스런 그의 가족들로 시작됩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분명 가족이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의 계획에서 중심이 된다는 점과 자녀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네 개의 표준 경전에서 특별히 두드러진 점은 바로 어린이들의 속성과 어린이들에 대한 구세주의 사랑, 그리고 어린이들의 영원한 구원 및



예수께서 우시니, 무리가 이를 보고 증거하니라. 예수께서 어린 아이들을 안으시고 차례대로 저들을 축복하시며 아버지께 저들을 위하여 간구하시었고”

부모들이 그들에게 가르쳐야 할 바에 관한 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속성

제가 젊은 시절 세미나리 교사였을 때였습니다. 한 학생이 제게 와서 자신이 지명받은 예배 준비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그 학생은 결혼한 언니에게 부탁하여 새로 태어난 딸을 데리고 반원들 앞에서 어린이에 대한 노래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예배 모임 날 언니는 곡목을 발표했고 그 학생은 피아노 반주를 했습니다. 반원들 앞에 선 그 젊은 어머니는 팔에 안은 딸을 들여다보면서 딸에 대한 사랑과 그 애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잠재력을 알기를 바라는 마음을 노래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반원들 모두가 그 광경을 보고 노래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의 풍경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중에 그 감동이 그대로 되살아 납니다.

자녀들은 온전하고 무죄하며 순수한 상태로 이 세상에 옵니다.(모세서 6: 54 참조) "저들은 죄 지을 수 없으며 저들이 성장하여 내 앞에서 책임을 깨닫게 될 때까지는 어린이를 유혹하는 능력을 사탄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였느니라."(교리와 성약 29:47)

우리는 어린이와 같이 되라는 명을 받았

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들어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마태복음 18:2~4)

이와 같이 우리는 경전 곳곳에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의로움과 정결함과 거룩함과 죄 없음이라는 높은 요구 사항에 대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린도전서 6:9~10; 니파이일서 10:21; 앨마서 7:21; 힐라맨서 8:25; 모세서 6:57 참조)

예수님 자신도 순종적인 자녀였습니다. 문자 그대로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그분은 요셉과 마리아가 알지 못한 사이에 성전에 남아 계셨습니다. 사흘이 지난 후에 그들은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그 이유를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누가복음 2:49~51)

물몬경의 독특한 점은 가족과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의 특성에 대

한 예를 보고 또한 그들과 같이 되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우리는 리하이의 아들 니파이를 필두로 자녀들이 지니고 있고 우리가 따라야 할 속성들을 봅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 니파이는 나이는 어렸으나 체격은 컸고... 주님께 간구하였노라, 보라 주께서 내게 임하사,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으며, 부친께서 하신 말씀을 모두 믿었던지라"(니파이일서 2:16) 온유한 마음과 믿음이라는 재능을 능가할 영적인 재능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재능에는 어린이들에게서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온유함과 순종이라는 두 가지 특성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의로움의 모범인 니파이는 그러한 거룩한 성품을 결코 놓친 일이 없으며, 오늘날에도 니파이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니파이일서에서는 형들로부터 결박당하고 폭정을 당한 니파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파이의 자녀들은 그의 결박을 풀어 주도록 눈물을 흘리며 간청함으로써 아버지에 대한 큰 사랑을 보여 주었지만, 마음이 강박한 레이맨과 레뮤엘에게는 아무런 효력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착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정정당당하며, 친절한 마음을 타고났음을 보게 됩니다.(니파이일서 18:11~21 참조)

야곱은 어릴 때 고난받은 것으로 인해 서(니파이일서 2:1 참조) 자녀들에 대해 약간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아내와 자

녀들이 "성품이 지극히 온화하고, 정숙하며, 하나님 앞에 우아"(야곱서 2:7)함을 상기시킵니다.

물몬경에서는 어린이의 속성에 관한 베냐민 왕의 영원한 가르침보다 더 귀중하고 강력한 구절은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하여... 어린이이같이 되어 유순하고 온유 겸손하며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여, 주께서 인간[우리]에게 합당하다 여기어 내리시는 모든 것에, 어린이가 그 부모에게 하듯 기꺼이 순종"(모사이아서 3:18~19)해야 합니다.

물몬경의 자녀들 중에는 이러한 거룩한 속성을 잃어버리거나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양육받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베냐민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전하였을 때 아직 나이가 어리어 베냐민 왕의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한 세대가 장성하며,"(모사이아서 26:1)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고, 그 교리들을 이해할 수 없었으며 구원의 의식 받기를 거절하였습니다.(모사이아서 26:2~4 참조)

구세주의 탄생의 표적이 있는 후에 개심한 레이맨인들 중 일부는 복음 따르기를 그만두고 "자라나는 세대의 간악함"(니파이삼서 1:30)과 한편이 되었습니다. 이는 "자녀들이 차차 장성하여 나이가 차며 스스로 나아가 행할 수 있게 되었"(니파이삼서 1:29)기 때문이며, "스스로 행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이 어린이처럼 되고 그리스도처럼 되는 핵심 요소인 순종심과 유순함의 속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몬경의 예언자들은 우리 자녀들 및 그들의 자녀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이 기록을 받아... 기쁨으로 저들의 시조에 관하여 배우기를 바라"(야곱서 4:3)고 그 밖의 어린이와 같은 중요한 속성들을 배우기를 바라면서 판에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구세주의 사랑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신 영감적이고도 사랑스런 이야기가 사복음서 중 세 곳에 나와 있습니다.(마태복음 19:13~15; 마가복음 10:13~16; 누가복음 18:15~17 참조) 세 기사들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마태복음 19:15)로 되어 있고, 누가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가의 기록에서만 다음과 같은 사랑스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마가복음 10:16)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의 팔에 안겨 안수받고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화가들이 이 사랑스런 표정을 포착하여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시는 장면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모든 성인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충실함을 보일 때는 "내 사랑의 팔로 너를 안아 주리라."(교리와 성약 6:20)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의 초등학교 시절에 가장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은 아름다운 어린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주님도 한때 우리처럼"입니다.

주님도 한때

우리처럼

어리고 순진한 착하고 선한 어린이로

이 세상에 오셨네

자 어린이들이아 너도 나도

예수님처럼 됩시다.

(어린이 노래책, 34쪽)

이 노래는 예수님께서 저와 모든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알고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가사 자체가 그런 표현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저에 대한 그분의 사랑의 영을 실제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의 어린이인 제 마음속에서 솟아났던 구세주에 대한 큰 사랑과 존경심과 그분처럼 되어야겠다는 소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합니다.

신약의 사복음서, 특히 어린이에 대한 기적과 병고침과 축복을 읽을 때마다 저는 그와 똑같은 사랑의 감정, 즉 저에 대한 주님의 사랑과 그분에 대한 제 사랑을 느낍니다. 물몬경의 독특한 점은 예수님께서 약속의 땅이 멸망될 때 살아 남은 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분은 어린아이들을 데려오게 하여 곁에 앉힌 다음 어린아이들과 부모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자신들을 위한



그림: 벨 파슨, 그리스도의 물로 자녀들의 목

예수께서 무리의 자녀들을 가르치시며 은총을 베푸시고... 저들이 그 부모들에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니... 예수께서 백성들에게 예언하신 것보다 더욱 위대한 것들이라.

예수님의 기도를 들던 사람들은 "우리에게 차고 넘치던 기쁨을 아무도 감당할 수 없었느니라."라고 말했습니다.(니파이삼서 17:17)

이 특별한 일이 있던 후에 "예수께서 우시니, 무리가 이를 보고 증거하니라. 예수께서 어린 아이들을 안으시고 차례대로 저들을 축복하시며 아버지께 저들을 위하여 간구하시었"(니파이삼서 17:21)습니다. 차례대로 라는 말은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처음 모습을 보이신 니파이삼서 11장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무리가 앞으로 나아가 손을 주의 옆구리에 넣어 보며, 그 손과 발의 못 자

국을 차례대로 한 사람씩 모두 만져 보고 나서, 저들의 눈으로 보며 친히 만져 보아 진실로 저가 예언자들이 오시리라 고 기록한 그분이심을 알아 증거하였으니"(니파이삼서 11:15) 이 영광스런 경험을 한 자들 가운데 어린이들이 있었습니까? 어린이들은 직접 구세주를 만져보고, 또 구세주의 손길을 받은 두 번의 기회를 가졌습니까?

니파이삼서 17장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합쳐"(26절) 이천 오백명이 그곳에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서 어린이의 수가 아마도 수백 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



어린이들은 완전하여 죄가 어린이
이들을 사로잡지 못하는지라. 그
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느니라"
그들은 완전하고 무죄하며 순수한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나며, "아담과 이브"으로
인한 저주가 어린이들에게서 씻겨졌고"

님이 어린이를 한 사람씩 안아 올려 축복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아마 여러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분은 참으로 큰 관심과 지극한 사랑을 어린아이들에게 보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 후 구세주께서는 이 백성들을 방문하시어, "예수께서 무리의 자녀들을 가르치시며 은총을 베푸시고 저들의 혀를 풀어 주신지라, 저들이 그 부모들에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니... 유아들까지 입을 열어 놀라운 일을 이야기하였도되"(니파이삼서 26:14, 16) 미 대륙의 주민들에게 베푼 마지막 성역의 하나님 이 경험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영의 자녀임을 확고히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조차도 "지혜 있는 자와 학식이 있는 자를 당황하게 하"(앨마서 32:23)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와 구원

선교부장으로 봉사할 때 저는 잣도 안뎀 아들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던 한 부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젊은 부부도 음과 응답을 얻기 위해 다른 교회에 나갔었지만 그들의 교리가 어떤 위안도 주지 못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그 교회에서는 장례식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의 장례와 매장을 도와 주었습니다.

선교사들은 토론을 시작했고 그들 부부

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얼굴 표정에 나타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몰몬경의 거룩한 교리가 아기를 잃은 데서 오는 슬픔과 상심을 거두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빈아다이의 말씀은 그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영생을 얻으리라."(모사이야서 15:25) 그들은 영생이란 하나님이 사시는 삶과 같은 것이며, 가족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은사입니다.(교리와 성약 14:7 참조)

더 나아가 그들은 어린 아이들은 결백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으며,(모사이야서 3:16, 21; 교리와 성약 29:46~47 참조) 그들의 부모가 맺은 그리스도와의 성약을 맺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모사이야서 6:2 참조)

그 부부의 곁을 떠난 아기는 영생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그들의 아기가 누리게 될 똑같은 생을 누리기 위해서 그 부모는 회개하여 자녀와 같이 되며,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신권의 권능을 지닌 자에 의해 침수로써의 침례로 시작하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 안수받고 성신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선교사들에게 물은 한 가지 질문은 죽은 아이의 침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주제에 관해서는 몰몬경에서 몰몬이 그의 아들 모로나이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다른 어떤 경전보다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몰몬은 유아 침례에 관한 교리 분쟁이 있음을 알고 모로나이에게 편지를 써서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몰몬은 주님께 여쭙었고, 주님께서는 성신의 권세를 통해 다음과 같이 계시해 주셨습니다. "죄가 어린아이들을 사로잡지 못하는 지라."(모로나이사 8:8) 어린아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느니라."(모로나이사 8:12) 그들은 완전하고 무죄하며 순수한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이브]으로 인한 저주가 나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에게서 씻겨"(모로나이사 8:8)집니다.

몰몬은 "회개하고 침례하는 일이 스스로 죄를 범할 수 있는 자에게 행하여지는 것임을 가르치며...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회개나 침례가 필요하지 아니하"(모로나이사 8:10~11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침례가 필요 없는 이유에 대한 진리가 중요한데도 다음과 같은 강력한 꾸짖음을 찾는 자는 좀처럼 없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들을 침례함은 하나님의 신성한 뜻을 조롱하는 것이라..."

"어린이들에게 침례가 필요하다는 자는 쓰디쓴 진창에 빠진 자요, 죄의 사슬에 얽매인지라, 신앙이나 소망이나 사랑이 없을지니 그 마음을 고치지 않는 한 쫓겨나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어린아이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순결하신 사랑을 부인하는 자의 간악함이 크리도다...”

“또한 어린아이들에게 침례가 필요하다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자비로우심을 부인하여 그리스도의 속죄와 구속의 능력을 헛되다 하는 자라

“그러한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저들이 죽음과 끝없는 고난에 있음이라. 내가 이를 담대히 전함은 하나님께서 이를 내게 명하셨음이라.”(모로나이사 8:9, 14, 19~21절)

물문경에는 어린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으며, 그들은 침례받을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가장 명확하고 순수한 교리가 들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는 부모의 역할

가족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이 가해지는 우리 시대에 대판장단 및 십이사도 정원회에서는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심이 되는 하나의 주제는 바로 어린이들의 중요성입니다. 특별히 관심이 가는 부분은 선언문에 유일하게 인용되어 있는 성구인, “자식은 여호와와 의의의 주신 기업이요”(시편 127:3)입니다. 같은 편에 다음과 같은 말도 있습니다.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시편 127:5) 이 귀중한 유산, 즉 어린아이들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귀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모형을 세운

것은 아담과 이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이름에 복을 돌리며 아들딸에게 모든 일을 알게 하니라.”(모세서 5:12) 주님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명하셨습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신명기 6:7) 주님은 엘리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금하지 못했음에 불만을 표하셨습니다.(사무엘상 3:13 참조) 잠언의 저자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언 22:6)

사도 바울은 아버지들에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에베소서 6:4)라고 가르쳤으며, 나아가서 자녀들에게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에베소서 6:1)라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유타주 맵레턴의 작은 집에서 부모님이 어린 우리들을 곁으로 불러오던 그 다정한 때를 기억합니다. 1940년대와 1950년대 당시 가정의 밤으로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물문경을 해설한 땅에서 나는 소리(A Voice from the Dust)에 있는 이야기를 읽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게임과 활동 및 맛있는 다과를 즐겼습니다. 집과 훌륭한 부모님에 대한 이러한 기억은 아내와 제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면서 어떤 문제

에 봉착할 때마다 동기를 부여해 주었고 받침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읽어 주시는 물문경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위대한 예언자와 선교사와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사랑을 키웠습니다. 그들은 저의 영웅이 되었으며, 어린 아이였던 저는 그들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을 가르치고 축복하신 “훌륭하신 부모님”이셨습니다.(니파이일서 1:1 참조) 훌륭한 부모는 가르치는 것 이상의 많은 일을 합니다. 다음에 나와 있는 그러한 일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리하이는 “부모의 지극한 정성을 모아 저들을 권고”했습니다. “진실로 나의 부친은 저들에게 가르쳐 전하시었느니라. 부친이 저들에게 가르쳐 전하시고 많은 것을 예언하신 뒤,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명하시고는 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치시니라.”(니파이일서 8:37~38) 훌륭한 부모는 온유하면서 확고하게 지도합니다.

리하이는 세상을 떠나기에 앞서 모든 자손들을 함께 불러모아 놓고 그들에게 깨어나서 “의의 갑옷을 두르라”고 호소했습니다.(니파이일서 1:13~23 참조) 그런 후에 그들에게 마지막 축복을 해주었습니다.(니파이일서 4:2~12 참조) 훌륭한 부모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아꿈이 아들 이노스에게 미친 영향력은 다음의 말씀으로 헤아릴 수 있습니다. “나 이노스는 나의 부친의 의로운 분이었



야콥이 아들 이노스에게 준 영향력
은 다음의 말씀으로 헤아릴 수 있
습니다. “나 이노스는 나의 부친이 의로운
분이었음을 아노니, ... 나를 가르치셨으
매”(이노스서 1:1) 이 가르침은 이노스가
자신을 위해 대속의 축복을 간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음을 아노니... 나를 가르치셨으매”(이노
스서 1:1) 이 가르침은 이노스가 자신을
위해 대속의 축복을 간구하도록 이끌었습
니다. 훌륭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속죄와
죄사유에 대해 가르칩니다.

아들들에 대한 모사이아의 사랑은 그의
조상들의 언어로 아들들을 가르친 것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언된 말씀을 깨달
아 알게 하였으며,”(모사이아서 1:2) 그들
을 가르친 교제는 무엇이였겠습니까? “이
기록을 탐독하여 그 곳에서 유익을 구하
(모사이아서 1:7)라는 바람과 판에 실린
예언자의 말씀이었습니다. 훌륭한 부모는
경전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며 그 말씀
을 탐독하도록 권고합니다.

엘마의 아들 엘마는 “아들 하나하나에
게 개별적으로 진리의 교훈을 가르치고자
아들들을 모두 한곳에 모이게 하였”(엘마
서 35:16)습니다. 먼저 그는 힐라맨에게,
그다음에는 시블론에게, 마지막으로 코리
안톤에게 말했습니다. 엘마는 힐라맨에게
“네가 젊었을 때 명심하여 지혜를 배우라.
또한 젊을 때 하나님의 계명 지키기를 배
우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아 살도록
하라... 말씀을 외치라.”(엘마서 37:35,
47)고 가르쳤습니다. 엘마는 시블론의 부
지런함과 굳건함과 성실함을 칭찬했습니
다.(엘마서 38:2~3 참조) 엘마는 또한 그
에게 지나쳐 남을 위압하지 말며 “나의 아
들아, 나아가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

치라.”고 조언함으로써 말씀을 마쳤습니다.(엘마서 38:12, 15 참조) 훌륭한 부모는 자녀들의 다른 점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엘마는 아들 코리엔톤에게 잘못을 바로 잡아 주고 그에게 의미 있는 교리적 메시지인 회개, 모범, 공의, 자비, 회복 및 대속을 가르쳤습니다. 다른 두 아들에게처럼 엘마는 코리엔톤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느니라.”(엘마서 42:31)고 말했습니다. 훌륭한 부모는 자녀들을 바로잡아 주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준비시킵니다

2천 명의 젊은 용사들은 어린이였을 때 “의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다는 것을”(엘마서 56:47) 어머니의 슬하에서 가르침 받았습니다. 게다가 이 용사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키웠습니다. “저들은 어리며 저들의 정신은 굳세며 계속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느니라.”(엘마서 57:27) 훌륭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가르칩니다.

힐라맨은 아들 니파이와 리하이에게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속죄에 관한 예언자들의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의 구속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움을 기억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부친의 말씀을 기억한지라”(힐라맨서 5:6~14) 훌륭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들의 삶을 구속주의 반석 위에 세울 것을 가르칩니다.

몰몬경에는 몰몬과 모로나이 간의 훌륭한 부자관계가 실려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모로나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마음에 기억하사… 내가 심히 기쁘도다. 내가 늘 기도하는 중에 너를 기억하며 거룩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은혜로써 네가 그를 믿는 신앙으로 끝까지 견디어 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하노라.”(모로나이서 8:2~3) 훌륭한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몰몬이 모로나이에게 쓴 마지막 말은 자녀들에 대한 모든 훌륭한 부모의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나의 아들이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믿으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들어올리사… 예수 아버지의… 자비하심이 영원토록 너와 더불어 함께하기를 간구하노라.”(모로나이서 9:25~26) 훌륭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오는 영생의 희망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해야 할 모든 일에 어떻게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요? 구세주는 우리에게 “[우리의] 가족과 더불어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여 [우리의] 처와 [우리의] 자녀들이 복받게 하라.”(니파이삼서 18:21)고 권고하셨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경전을 읽고 공부할 때, 우리는 주님의 길을 찾기 위해 어떻게 배우는지를 그들에게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모사이사서 4장 11~16

절을 읽음으로써 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배나민 왕이 가르친 몇 가지 중요한 진리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진리는 명령으로 인용될 때가 많지만 전후 관계로 보면 분명히 유익한 것들이며 의로운 행동에 따른 당연한 결과입니다. 첫째, 배나민 왕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함당치 아니한 너희를 대함에 선하시며, 오래 참으심을 항상 기억하여 스스로 지극히 겸손하며, 매일 주의 이름을 부르며… 장차 오실 이를 믿는 신앙을 굳게 지켜야 할 것을 늘 기억하라.”(모사이사서 4:11)고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의 다섯 절에는 11절의 권고에 따른 결과나 유익한 점이 나와 있습니다. 12절과 16절에서 “너희가… 하지 아니하라.”라는 말과 “너희가… 할 것이요”라는 말의 횡수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들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 자녀들과 의로운 일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축복된 결과들을 열거해 놓은 것임을 곧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의 가치와 그들의 거룩한 속성 및 특성,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런 점들을 어떻게 보여 주셨는지를 더욱 분명히 깨달으며 다음 말씀이 성취될 것을 간구하게 됩니다.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이사이사서 54:13; 니파이삼서 22:13 참조) □

사랑의 끈으로 둘러쌘

하 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모두 서로 사랑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외투와 같이 사랑의 끈으로 몸을 둘러싸라. 이는 완전과 평화의 끈이니라"(교리와 성약 88:125)

사랑은 마음의 작용이다. 참된 사랑은 단순한 애정이 아니라 가장 고결하면서 가장 힘있는 사랑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남을 사랑하는 일도 쉬워진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 간다.

사랑의 은사

이런 사랑을 키우는 일은 주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사랑은 순종과 봉사, 희생, 회개, 통회, 부지런히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사이다. "마음을 기우며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마음으로 따르는 자에게 허가하시는 이 사랑으로 충만하라"(모로니아서 7:48)

아버지가 자기를 키워 온 방법에 대한 불만으로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한 자매가 있었다. 이 자매는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태도 변화에 대한 구세주와 예언자들의 말씀을 읽고 불현듯 저는 지금까지의 저의 완고한 태도가 아빠의 감정을 상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제 인생의 모든 면에, 특히 하나님 아버지와 저와의 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깨달

았습니다."

그 후 그 자매는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2년 가까이 기도도 하고 금식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가정 교육을 주제로 하는 모임에 참석하는 동안 일어났던 일을 그녀는 이렇게 회상한다. "그때 저의 영혼은 아빠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졌어요. 저는 이 사랑을 그대로 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그 자매 부부는 그녀의 아버지 집으로 차를 몰았다. "저는 벨을 눌렀어요. 대문이 열리더니 성난 표정을 지은 아빠가 보였어요. 아빠는 다시 문을 세게 닫아 버렸어요. 제가 다시 벨을 눌렀죠. 그러자 아빠는 마침내 저를 안으로 들여보내 주셨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몰랐어요. 아마 그동안 저한테 잘 대해 주시 않은 아빠를 용서하겠어요' 같은 말을 할까 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이지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아빠와 저는 함께 자리에 앉았는데 저는 아빠의 손을 제 손에 갖다 놓고 아빠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아빠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빠가 알아 주셨으면 해요. 저는 아빠가 저의 아빠이기 때문에 몹시 기뻐요.' 기적은 실제로 저의 심경이 제가 말한 그대로였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품고 있었던 분노와 상한 마음이 사랑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여러 해 동안 아빠에 대한 저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어요. 아빠의

성격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의 그릇된 마음을 고쳐 주셨던 거죠. 저는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느꼈어요."

여러 가지 덕의 근원이 되는 것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키울 때 그 밖의 다른 덕목도 발전시키는 셈이 된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만약 성도들이 소중히 하고 실행한다면 수천 수만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입증해 줄... 한 가지 미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와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인내의 근본인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교회 대관장의 가르침: 브리감 영, 218쪽) 참된 사랑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 선행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와 같은 정신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행동하는 것만큼 인생에 온전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일은 없다. □





가장 위대한 분, 델 파손

질의 응답

용서 받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회개의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만,
내가 용서 받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다음 대답은 견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교회의 교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대답

아마도 진정한 회개의 가장 어려운 부분 가운데 하나가 궁극적으로 용서 받았다는 느낌을 갖는 일일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자신이 지었던 죄를 기억하고 그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수님으로부터 용서 받는 과정은 아주 간단합니다.

“보라, 무릇 죄를 회개한 자는 용서 받을 것이요, 나 주가 저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 아니하는지는 이로써 알 수 있나니, 보라, 회개하는 자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 죄를 버리리라.”(교리와 성약 58:42~43; 강조 표시는 추가된 것임)

죄를 고백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매우 어렵고 겸손함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특히 우리의 잘못을 감독이나 지부장 혹은 잘못을 한 상대에게 고백할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교회의 회원 자격에 영향을 줄 만큼 심각한 죄를 범했을 경우에 우리는 감독이나

지부장에게 고백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주님과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가 피해를 준 대상에게 나타내 보이고 가능하면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피해를 보상하여 잘못된 일은 올바르게 되돌려 놓는 일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일이 어렵기는 하지만 죄를 버리는 것은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죄가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것이라면 말입니다. 하지만 죄를 버리는 일은 우리가 내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과 계명을 어기는 행위가 가져올 쾌락이나 이득보다는 내면적인 평화와 순결을 더 바란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요건을 우리가 충분히 충족시킨다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베냐민 왕의 백성들이 경험했던 양심의 평안을 느낄 때, 용서 받았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영이 저들에게 임하신지라, 저들이 기쁨으로 찬미하며 죄 사함을 받으며 양심에 평안을 얻으니”(모시아야서 4:3) 이러한 성신의 치유력이 진정으로 죄를 뉘우친 자

를 깨끗하게 하고 그에게 위안을 줍니다.

해롤드 비 리 대판장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던 젊은이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일입니다. 롬니 부대관장님과 내가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한 젊은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어두운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저는 내일 처음으로 성전에 갑니다. 저는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감독님과 스테이크 부장님께 가서 잘못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정도의 회개의 기간이 지나고 제가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자 감독님과 스테이크 부장님은 제가 성전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께서도 저를 용서해 주셨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잠깐 생각한 다음, 모시아야서에 있는 베냐민 왕의 말씀을 기억해 냈습니다. ... 거기에 답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어디에 있던 당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보상하고 죄가 여러분이 교회에서 갖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합당한 권능을 가진 지도자에게 찾아가 고백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받아 주셨는지에 관한 확실한 대답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는 동안 양심의 화평을 찾았다면 그것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회개를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희는 거룩한 곳에 설지어다” 성도의 벗, 1973년 3월호, 43쪽)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잊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 역시 사실 구세주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었던 죄가 고통스러운 경험이었고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에게는 이전에 지은 죄까지도 겹치리라. 주 너희 하나님은 말씀하시느니라”(교리와 성약 82: 7) 하지만 용서를 받는다면 과거의 죄들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가끔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죄의 결과로 고통을 받아야 할 때도 있지만 더 이상의 죄책감이나 후회로 괴로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용서에 관해서 더 많이 알고 싶다면 경전을 찾아보십시오. 용서와 속죄라는 주제를 경전의 색인에서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감독이나 지부장과 접견을 하십시오. 그리고 온전한 회개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했는지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이 추구하는 화평을 찾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독자의 대답

사탄은 우리의 죄가 너무나 심각해서

용서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비로우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제시한 길대로 간다면 주님은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베르투 엠 차베즈

온두라스 코마야구엘라 컨트리 스테이크 산타페 와드

속죄의 능력에 의해 우리의 영이 치유되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용서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냐민 왕의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용서 받았을 때와 같은 느낌을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코페 앤 고란 제라드

아이보리코스트 아비잔 스테이크 소지피하 와드

저는 10년간 활동이 저조한 회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행복하고 저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회개, 신앙, 인내, 기도, 교회 참석 등을 통해 저는 제가 용서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신이 다시 함께함을 느낄 수가 있어 기쁘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데우 로드레게스 그루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스테이크 인스브루크 지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태복음 11:28, 30) 회개를 한 후



베르투 엠 차베즈



코페 앤 고란 제라드



클라우데우 로드레게스 그루버



일롱가 비디 킬루웨



하네스 베이파루 보르주



줄레이누 라주로테 올레베아루

에도 죄책감을 느낀다면 약속 받은 화평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는 우리가 죄를 용서 받지 못했다고 느끼게 하는 것과 결코 용서 받을 수 없다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일롱가 비디 킬루웨 장로
콩고 공화국 킨샤사 선교부

회개는 가장 달콤한 선물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영을 드높여 주고 구세주와 하나가 되게 해줍니다. 나의 삶이 화평과 평안, 그리고 끝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때 구세주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항상 나와 함께할 때 내가 죄짓는 것을 피하게 되며, 구세주의 모습에 나의 모습 속에서 빛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내 자신이 나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네스 베이파루 보르주
콜롬비아 칼리아메리칸 스테이크
빌라 델 라고 와드

경전을 읽고 잘못된 행위들을 멈추고 남을 용서해 주고 간증을 전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자신이 용서 받았는지 기도로서 물어 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만약 당신이 용서 받았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신을 통해 마음 속에 평안한 느낌을 주실 겁니다.

줄레이누 라주로테 올레베아루
포르투갈 코임브라 지방부
산타클라라 지부

모로나이서 8장 26절에는 죄사함을 받

은 뒤에는 성신의 임하심을 받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과 위안, 그리고 사랑을 얻게 됩니다.

마사키 게이큐
일본 나고야 스테이크
고기소 와드

여러분이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보내 주신다면 질의 응답란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답을 2000년 1월 1일까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AND ANSWERS, International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Floor 25, Salt Lake City, UT84150-3223, USA. 여러분의 답은 여러분의 언어로 타자 치거나 깨끗하게 써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성명, 나이, 주소와 와드 및 스테이크(지부 및 지방부) 명칭을 꼭 적어서 보내 주십시오.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사진도 보내 주십시오. 사진은 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답이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은 개인적인 내용이면 요청에 따라 이름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받은 대답 가운데 몇 가지를 선택하여 신도록 하겠습니까.

질문: 제 친구는 교회에 관심이 있는 듯합니다. 그는 말일성도가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 저를 유심히 관찰합니다. 하지만 저는 많은 실수를 범합니다. 제가 완벽하지 못한데 어떻게 하면 좋은 모범을 보일 수 있을까요? □

보다 중요한 교훈



에리카 디하트

우 리 엄마가 여동생 산텔을 낳기 전에 가족 모두 여자 애인지 남자 애인지 궁금해 했었다. 나는 남자애라고 확신을 했었다. 우리 집은 이미 딸이 일곱이나 되었기 때문이다. 아들이라고는 오빠 셋이 전부였다. 아무튼 나는 남자애이길 바랐다. 나를 놀리지 못할 남동생이 한 명 생겼으면 했으니까. 하지만 산텔이 태어나자 내 여동생이 된 이 특별한 여자 아이가 태어난 게 너무나도 감사했다.

산텔은 다운 증후군 아기였기 때문에 배우는 속도가 매우 느렸다. 하지만 우리는 산텔이 '화평케 하는 자'임을 깨달았다. 우리 모두가 서로 싸우고 소리를 지를 때, 산텔은 항상 서로를 도와야 하고 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내도록 도와주었다.

산텔이 성장함에 따라 우리는 친구가 되었다. 어느 날 나는 산텔에게 신발 끈 매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했었다. 내가 신

발 끈을 매었다가 동생이 직접 해 보도록 하려고 풀었다. 한참 해본 후에 우리는 낙담하고 말았다. 산텔은 왜 그냥 가서 놀 수 있게 신발 끈을 매주지 않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인내심을 잃었고 아주 큰 소리로 야단을 쳤다. 야단치는 소리에 충격을 받은 산텔은 눈물이 맺힌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훌쩍거리면서 목이 멘 목소리로 애원하듯이 말했다.

"언니를 사랑해."

이제 내 여동생이 나를 가르치고 있었다. 그날 내가 배운 것은 신발 끈을 매는 일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었다. 내가 화를 내고 못 되게 굴었어도 여동생 산텔은 나를 사랑한 것이었다. 나는 산텔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르치려고 했었다. 하지만 나는 산텔에게서 그리스도의 용서와 친절의 모범을 본 것이다.

나는 이보다 더 중요한 교훈은 생각할 수 없다. □

“내가 약속하노니...”

라나 제이 카터

그림: 그레그 소켈슨

동반자인 클라리차 카르모나 자매와 나는 무관심한 사람들과 진전없는 구도자들 때문에 지치고 낙담해 있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도미니카 공화국의 푸에르토플라타에서의 4월 어느 저녁 우리들의 사기는 날씨만큼이나 의기소침해 있었다.

나는 엘리나 곤잘레즈와 그녀의 가족들을 방문하는 일만을 고대하고 있었다. 우리가 재활동되도록 돕고 있는 엘리나는 우리와 친한 친구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그녀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웃에서 온 한 소녀가 “누가 당신들과 얘기하고 싶대요”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복음을 알고 싶은 사람인가 보다! 나는 기쁘게 생각되었다. 엘리나는 우리가 가도 괜찮다고 했다. 사실 그녀는 같이 가고 싶어했다. 그래서 카르모나 자매와 엘리나, 그리고 나는 희망을 가지고 집을 나섰다. 하지만 웬지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운하 옆에 있는 작은 집에 들어갔다. 등불 하나가 첫 번째 방을 밝히고 있었다. 몇 명의 여자들은 흔들의자에 앉아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방 주위에 서 있었다. 우리의 구도자 중 한 명인 메르세데스는 작은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제로니모라는 키 큰 남자가 명령하듯 “세엔텐사!”(앉으시오!)라고 말하자 나의 첫 느낌이 옳았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의자에 앉아 근심스럽게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 곳의 목사인 제로니모는 누군가가(메르세데스를 가리킴) 질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론 할 기회를 마련한 것이었다.

주제는 몰몬경이었다. 우리의 임무는 제로니모가 말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해서 몰몬경이 참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는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을 성경 구절로 뒷

받침하라고 요구했다. 우리 각자에게 3분씩 시간이 주어졌다.

카르모나 자매와 나는 어둠의 심연 속에 있는 두 개의 작은 촛불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두려웠다. 나는 기도를 하고 시작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제로니모는 모두에게 일어나서 손을 잡으라고 명령하고는 들어 본 적이 없는 기도를 했다. 그가 하늘을 향해 외치는 동안 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을 조용히 간구했다.

아고보서 1장 5절이 섬광처럼 마음속에 떠올랐다. 나는 앉으면서 이 구절이 있는 곳을 내 성경에서 펼쳤다. 그 페이지는 오랜 세월 동안 사용하여 많이 낡아 있었다. 나는 몇 달 전에 이 부분을 이미 암기했었다. 나는 성경을 닫으면서 메르세데스에게 주의를 집중했다.

나는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성경 구절을 그들에게 들려주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나는 메르세데스를 바라보며 말했다. “몰몬경은 참되거나 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지 아닌지 그 진실을 알고 싶어하십니다. 저는 몰몬경이 참됨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는 성신을 통해 참되다는 사실을 알려 주셨기 때문에 저는 압니다. 메르세데스, 몰몬경이 참된지를 알고 싶다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구해 보십시오. 제가 약속하노니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방안은 쥐죽은듯이 조용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카르모나 자매를 쳐다봤다. 그녀는 대단히 강한 힘과 확신을 가지고 몰몬경의 참됨을 간증하였다. 아무도 성령이 임하신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제로니모가 침묵을 깼다. 그는 일어나서 20분 동안을 설교했

다. 영은 그 방에서 사라졌고 또한 듣던 이들도 대부분 사라지고 말았다. 메르세데스, 엘리나, 카르모나 자매, 그리고 나만 남아 있었다. 나는 마침내 그의 말을 막았다.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신 바를 말했던 것이다. 우리는 그만 가겠다고 말하고 그와 메르세데스에게 잘 있으라고 말했다.

제로니모는 우리 뒤에서 외쳤다. “가지 마시오! 가지 마시오!”

우리는 엘리나의 집으로 돌아와 금방 있었던 일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한 간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들의 사랑을 이야기했다.

그 다음날 우리는 메르세데스를 방문했다. 그녀는 자신이 전 날 밤의 사태와는 아무 상관도 없었다고 확신시켜 주었고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몰몬경이 참된지를 알고 싶은 강한 욕구를 느꼈다고 말했다. 우리는 함께 무릎을 꿇었고 그녀가 겸손한 기도를

드렸다. 기도를 드린 후에도 그녀는 몇 분 동안 무릎을 꿇은 채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비로소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윽고 나는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다.

“비엔”이라고 그녀가 속삭였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좋았다.” 이상의 의미를 담겨져 있었다.

“몰몬경은 참된가요?” 라고 내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 숙인 머리를 끄덕였다. 전 날 저녁 두 선교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셨던 바로 그 영이 이 겸손한 여인에게 몰몬경의 진실됨과 힘을 확신시켜 준 것이었다. □





아르헨티나의 밝고 즐거운 날

주디 시 올슨

사진 촬영: 글썬이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해가 떠오르
기에는 아직 한참 이른 시간이다. 축축한 아침
공기가 그 도시의 변화기에 위치한 예배당에 도착하
는 학생들의 조용한 발소리들을 실어 나른다. 열쇠를
돌리니 문이 열린다. 한 무리의 학생들이 들어오고 문이 잠긴다.
이는 동트기 전 아직 캄캄한 때의 기본적인 안전 장치이다. 부드
러운 노크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뛰어들어와 학생들은 더 불안하
다. 학생들의 웃음 소리와 활기는 이른 아침 시간이 아닌 듯하다.
모두 열세 명의 학생들이 신약전서를 공부하면서 하루를 시작하
기 위해 도착해 있다. 공부 후에 그들은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간
단한 아침 식사를 한다. 그리고 육신과 영을 튼튼히 한 학생들은
학교나 일터로 떠난다.

친구들과 헤어지면서 소란스런 길을 걸어 내려오던 한 여인이

예배당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주저하면서 들어와 이렇
게 묻는다. "너희들은 몰몬이지? 우리 아들이 맨도자
에 있는 몰몬 사촌처럼 되고 싶어하는데, 누가 교회
에 대해 얘기해 줄 수 있겠니?" 그때 마침 신교사들
이 예배당에 도착해 곧 그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
개할 자리가 마련된다. 이른 아침 햇살의 조명을 받는 이 장면은
아르헨티나 교회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 주는 두 가지 자원,
즉 자라나는 세대의 힘과 늘어가는 선교사의 수확을 그대로 그려
내고 있다.

복음의 씨앗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마빈 제이 벨라드 장로가 복
음 전파를 위해 남미를 헌납한 1925년 아르헨티나의 독일 이주
민들 가운데 처음으로 심어졌다. 얼마 후 그는 다음과 같이 선포
했다. "이 곳에서의 주님의 사업은 마치 도토리가 서서히 자라서



참나무가 되듯이 당분간은 서서히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남미의 선교부는 교회 내에서 큰 힘이 될 것이다.”(마빈 제이 벨라드, 성도의 빛, 1998년 7월호, 1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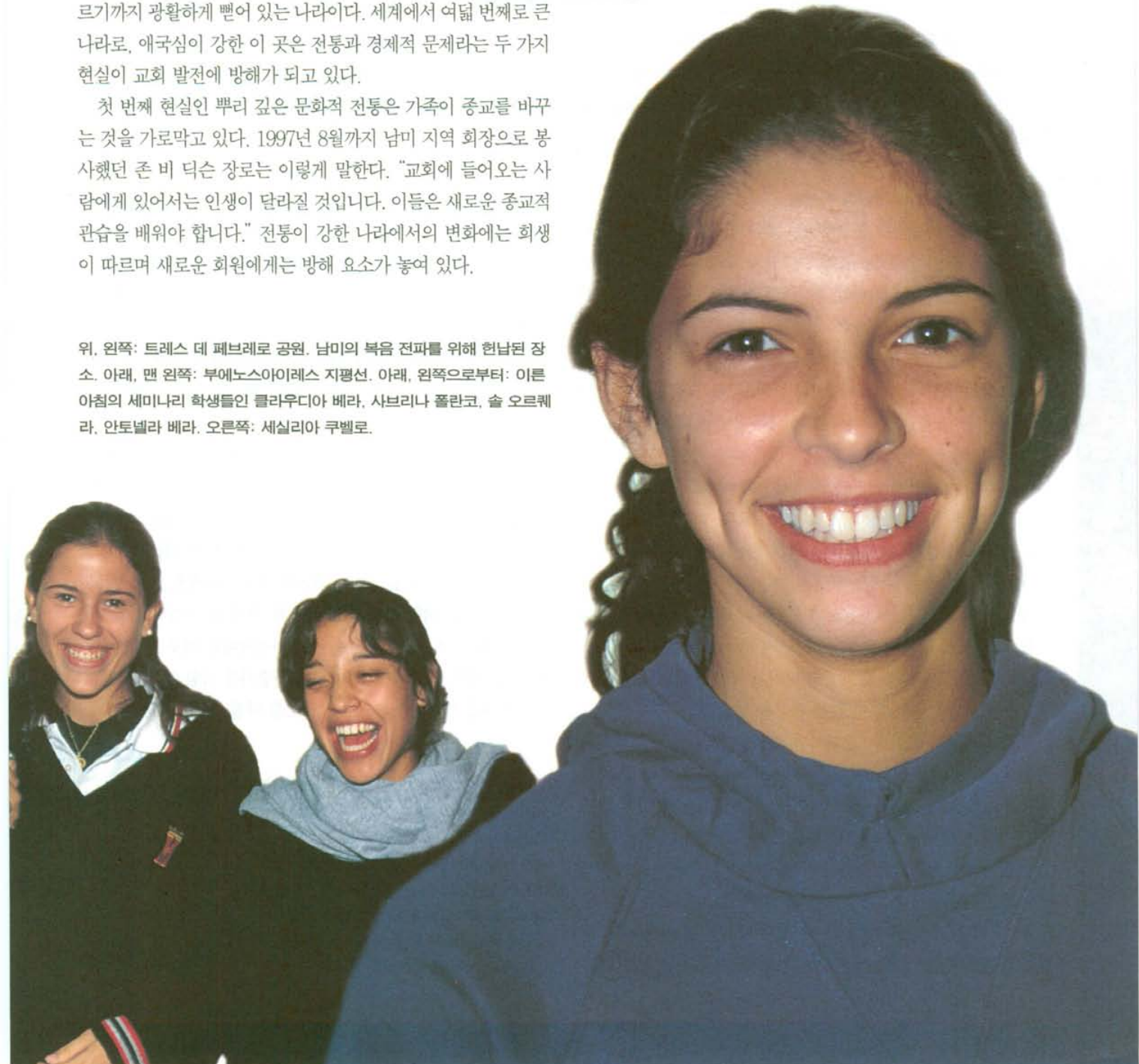
남미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에서는 벨라드 장로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 그 씨앗은 서서히, 그러나 꾸준히 해를 거듭하며 대부분 유럽 이민자들의 후손인 이 백성들에게 퍼져나갔다. 오늘날 아르헨티나의 말일성도들은 64개 스테이크에 27만 7천 명이 넘는다.

아르헨티나는 남동 해안을 따라 대서양의 바람 센 해변으로부터 북서 국경을 이루는 안데스 산맥의 눈에 덮힌 큰 봉우리에 이르기까지 광활하게 뻗어 있는 나라이다.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큰 나라로, 애국심이 강한 이 곳은 전통과 경제적 문제라는 두 가지 현실이 교회 발전에 방해가 되고 있다.

첫 번째 현실인 뿌리 깊은 문화적 전통은 가족이 종교를 바꾸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1997년 8월까지 남미 지역 회장으로 봉사했던 존 비 디슨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종교적 관습을 배워야 합니다.” 전통이 강한 나라에서의 변화에는 회생이 따르며 새로운 회원에게는 방해 요소가 놓여 있다.

위, 왼쪽: 트레스 데 페브레로 공원. 남미의 복음 전파를 위해 헌납된 장소. 아래, 맨 왼쪽: 부에노스아이레스 지평선. 아래, 왼쪽으로부터: 이른 아침의 세미나리 학생들인 클라우디아 베라, 사브리나 폴란코, 술 오르케라, 안토넬라 베라. 오른쪽: 세실리아 쿠벨로.

두 번째 현실인 경제적 불균형은 오랫동안 계속된 정치적 불안에서 기인된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극심한 재정적 문제를 가져왔다. 아르헨티나 메이피우 데 큐요 스테이크, 메이피우 제1와 드의 헥터 나바로는 말한다. “가족이 굶고 있거나, 기본 필수품이 부족한 상황에서 복음을 배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의 일련의 조치들이 순조롭게 실행됨에 따라 경제적 불안 정도 조종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 결과 은행이 다시 대출을 시작하여 국민들이 집과 차를 사고 사업 자금을 쓸 수 있게 되었다. 경제는 지난 7, 8년 동안 계속 성장하여 중산층이 형성될 정





도에 이르렀다. 첨단 기술이 요구되고 여전히 경제 문제가 도사리고 있지만 번영할 기회는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

아르헨티나의 문화적·경제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단단한 뿌리를 내려 나라 전역에서 빠르게 성장해 가고 있다. 다음 세 도시에 있는 각 교회의 모습은 성도들이 새로운 전통을 만들고 회원들의 경제적 원조를 위해 복음 원리를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 준다.

살타에 씨를 뿌림: 새 전통을 가르침

살타에서는 회반죽과 콘크리트로 지은 집들이 나란히 들어서 있다. 길고 좁은 거리에는 초기 인디언과 볼리비아 인의 후손들이 많이 섞여 있는 약 5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경치 좋은 이 마을은 푸른 풀이 무성한 안데스 산맥 기슭에 자리잡고 있으며,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버스를 타고 가면 북쪽으로 약 스물두 시간이나 달려야 한다. 살타와 이보다 좀더 먼 북쪽에 있는 인구 약 50만 명의 인근 마을인 산살바도르 데 주주이에는 세 개의 스테이크가 있다. 이 스테이크들은 회원 확장에 따른 지도자 부족 문제가 아르헨티나 전역의 여러 교회의 사정과 비슷하다.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성전에 갈 사람들이 필요해요.”라고 살타 스테이크의 재신토 로베르토 디에즈 부장은 말한다.

새로운 회원 및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이 복음 중심의 생활 양식을 익히는 것을 돕기 위해 스테이크는 두 가지 중요한 프로그램, 즉 새로운 회원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복음 중심의 목표를 세우도록 청소년을 돕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새로운 개종자를 도움. 교회에서 관심을 쏟고 있는 개종자의 지속적인 활동에 대한 강조는 살타와 주주이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전역의 다른 스테이크에서도 크게 강화되고 있다. 개종자가 교회 회원이 되는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워드 선교 책임자들은 복음 선교사들과 밀접하게 협력하며 일하고 있다. 스테이크 선교사들은 최근 개종자에게 새로운 회원을 위한 토론을 하고 있으며, 선교사들이 전근 갈 때 개종자들이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우정을 나누고 있다. 살타 스테이크 엘 포르테주엘로 워드의 마리

오 로드리구에즈 감독은 말한다. “우리는 회원들을 보내 구도자와 새 개종자들을 만나도록 하고 있어요. 선교사를 통한 개종 과정은 사람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주지만 회원들이 늘 경험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구도자들에게는 아미고(친구)가 필요해요. 그들은 자기네와 같은 사람들과 사귀고 싶어하고 그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성공적인 선교사업에 대한 책임은 실제로 선교사가 아닌 우리에게 있지요.”

새로운 회원 토론이 우정을 쌓고 이해를 깊게 하는 가운데 지역 회장단은 최근의 개종자들이 본질적으로 말일성도의 관습에 대해 배우도록 도움 필요성을 느꼈다. 디슨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새 개종자를 더 많이 보유하고자 하는 킥클리 대관장의 바람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도움이 되는 한 가지 방안으로 발견해 낸 것은 침례받은 가족이 그 후에도 선교사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새로 침례받은 회원들의 가정에 가서 그들이 말일성도의 관습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1997년 8월부터 지역 회장으로 봉사해온 카를로스 에이치 아메이도 장로는 말한다. “선교사들이 새로운 개종자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림으로써 워드나 지부의 지도자들은 새 회원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며, 부름을 주고, 형제들을 신권에 성임합니다.”

지역 회장단은 선교사들이 최근의 개종자들에게 교회 활동의 실천에 관련된 여덟 개의 원리들을 한 주에 한 가지씩 가르치도록 지시했다. 가르치는 새로운 관습 가운데에는 매주 교회에 참석할 것, 개인 및 가족 기도와 교회 찬송가를 익힐 것, 지속적으로 경전을 읽을 것, 완전한 십일조를 바칠 것 등이 포함된다.

위: 살타 스테이크의 재신토 로베르토 디아즈 부장.
오른쪽: 로메로 가족(왼쪽으로부터): 오스카 로메로, 아르헨티나에서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 아내 수산나, 앞으로 사망하기까지 이른 아침 세미나리 교사였음: 아들 맥시밀리아노:
사위 미구엘 몬타 아, 트리부노 워드 감독단 보좌:
할머니 알비아나 데 로메로, 전 팔레르노
지부의 상호부조회 회장: 노르마 로메로 데 몬타 아,
미구엘의 아내이며 트리부노 워드 청년 회장.

다.(선교사들은 개종자들에게 현금 명세서가 있는 장소, 명세서를 적는 법, 현금을 전할 사람을 가르쳐 준다.)

“선교사들은 각 가족에게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줍니다”라고 덕슨 장로는 말한다. 그리고 나서 선교사들은 영원한 가족 생활의 중요성을 설명한 후 그 선언문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 놓도록 권한다. 또한 가족은 가정의 밤을 하는 방법을 배우며 가족 역사 사업을 소개받고 성전에 갈 목표를 세우도록 권유 받는다.

“우리 일에 있어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은 개종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라고 전 아르헨티나 살타 선교부의 카를로스 페드레이아 선교 부장은 말한다.

빅터와 노르마 소아르도,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인 열두 살 난 릴리안과 열다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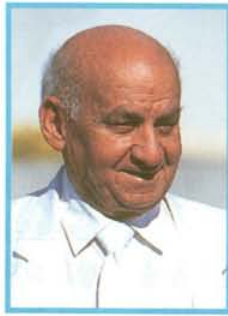
살 난 마르코스를 예를 들어 보자. 그들은 1997년에 침례받았다. 소아르도는 따뜻한 환영과 훌륭한 말일성도가 되는 방법을 통해 받은 교훈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 “교회를 알게 된 때부터 저의 삶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라고 소아르도 형제는 말한다. 지부장으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은 더욱 놀라운 일이었다고 그는 덧붙여 말한다.

가족이 침례받고 난 얼마 후에 빅터가 생계 수단으로 이용하던 자동차가 사고로 망가졌다. 가족을 부양할 방편이 없어진 빅터는 이내 좌절하게 되었다. 그는 차를 살 돈이 없었던 것이다.

어느 월요일 저녁 가정의 밤을 계획할 차례가 된 빅터는 아내와 자녀들을 불러모아 놓고 이렇게 말했다.

“오늘밤에는 정규 공과 대신 기도를 하도록 하자.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자.” 그들은 차례로 주님께 기도드렸다.





빅터는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며칠 후에 저는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팔려고 내놓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집을 찾아 주소를 들고 길을 내려가면서 저는 길 옆에 세워 둔 낡은 트럭 한 대를 지나치게 되었는데, 그 순간 차 주인에게 그 트럭을 팔 의향이 있는지 물어 보아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주인은 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두 사람은 흥정을 시작했다. 처음 얼마 동안은 흥정이 잘 되지 않다가 차 주인이 드디어 빅터에게 가진 돈이 얼마나 있는지 물었다. 차 주인은 원래의 절반 가격으로 소아르도 가족에게 트럭을 팔기로 합의했다.

빅터는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다. “이 차로 저는 가족을 부양하고 십일조도 내고 있어요. 그 트럭은 제게 필요한 것들을 많이 채워 주고 있지요. 트럭을 갖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주님께서는 제게 필요한 것을 더 잘 알고 계셨어요.” 말일성도로서 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움으로써 소아르도 가족은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문제들에 대처하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침례를 베푼 후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보인 결과 살타와 주주이 지역은 아르헨티나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난 몇 년 간 뜻 깊은 성장을 해왔다. 이러한 발전으로 현재 살타 웨스트 스테이크 구별 지부의 지부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빅터 소아르도와 같은 많은 새로운 지도자들이 배출되었다. 스물다섯 살에 교회에 들어와서 스물아홉 살에 주주이 스테이크 부장으로 부름받은 치열 교정의인 페드로 로페즈는 이렇게 말한다.

“여기 북부의 지도자의 약 80퍼센트는 회원 1세대에서 나왔어요.” 개종자들이 말일성도의 생활 양식에 적응하도록 도와 줌으로써 살타와 주주이에 있는 워드 및 스테이크들은 괄목할 만하게 강화되었다.

청소년들에게 손을 내밀. 청소년이 장래의 지도자가 되도록 돕는 것 역시 교회 지도자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최근의 개종자들 가운데에는 그들 가족 중 유일한 회원인 청소년들이 많아요.” 계속해서 디에즈 부장은 현재 모든 성인 남자 개종자의 약 60퍼센트가 열입곱에서 스무 살 사이의 젊은이들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에 가족 일부가 회원이거나 활동이 저조한 가정의 청남 청년들의 수를 더해 볼 때, 이 젊은이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의 많

은 지원과 가르침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문제의 일부는 경제적 것이다. 청소년들은 현재 아르헨티나의 의무 교육인 7학년을 마치면 흔히들 일터로 나가 가계를 위해 돈벌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들의 봉급으로 가족 부양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가족 일부가 회원이거나 활동이 저조한 가정의 많은 말일성도 청소년들은 고등학교로 진학하거나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권유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은 젊은이들의 한정된 기대치를 바꾸는 일을 하고 있다. 지도자들은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이해하도록 돕고자 노력한다. 디에즈 부장은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 청소년들은 감독과 세미나리 교사들의 도움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접견을 통하여 그들 각자에게 선교사와 성전 결혼이라는 미래상을 심어 주고 있지요.” 그들 스스로 장래를 책임질 준비를 할 필요성과 아울러 교육의 목표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

살타 지역의 각 스테이크에서는 감독이 청소년에게 필요한 복음의 시각을 갖게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교회 교육 기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세미나리 및 신학 연구원의 교사들은 청소년과 함께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감사하며 디에즈 부장은 말한다. 이러한 노력은 젊은이들이 일상 생활에서 겪는 갖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디에즈 부장은 실제로 그런 문제들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열입곱 살 때 침례받은 그는 가족 중 유일한 회원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저를 이해시킨 것은 바로 지부장이었습니다. 그분은 저와 많은 시간을 보냈고 항상 제게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그 중요한 만남은 젊은 재신도 디에즈로 하여금 선교사업을 할 결심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선교사로 떠났다. 2년 후 그가 돌아올 즈음에는 그의 어머니와 다른 열한 명의 식구가 교회에 들어와 있었다.

난관에도 무릅쓰고 인내하며 선교사로 봉사한 후 돌아와서 더 많은 교육을 받은 다음 성전 결혼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청소년들은 주님 사업의 위대한 후원자들이다. 마르셀로 곤잘레스는 선교사업을 한 뒤, 돌아와서 성전에서 결혼하겠다는 목표를 세

있던 사람이다. 그는 스물네 살에 감독으로 부름받았고, 스물 여섯 살에 스테이크 부장이 되었으며, 현재 아르헨티나 살타 선교부장단 보좌로 일하고 있다.

또 다른 회원인 미구엘 세무디오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공부하던 중에 교회로 들어왔다. 그는 여자 친구를 남겨 두고 선교사로 나갈 어려운 결심을 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제 여자 친구의 부모님은 딸에게 침례를 허락하실 것 같지 않았고, 그녀도 제가 선교사로 나가는 걸 원치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했고 그래서 위대한 보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그는 흰옷을 입고 두 명의 선교사와 함께 서 있는 그녀의 사진을 받고 그녀가 침례받았음을 알았다. 그가 귀환한 후 두 사람은 성전에서 결혼했으며, 그 뒤 5년도 안 되어 그는 주류 스테이크 부장단의 제2보좌로 부름을 받았다.

디에즈 부장은 이렇게 말한다.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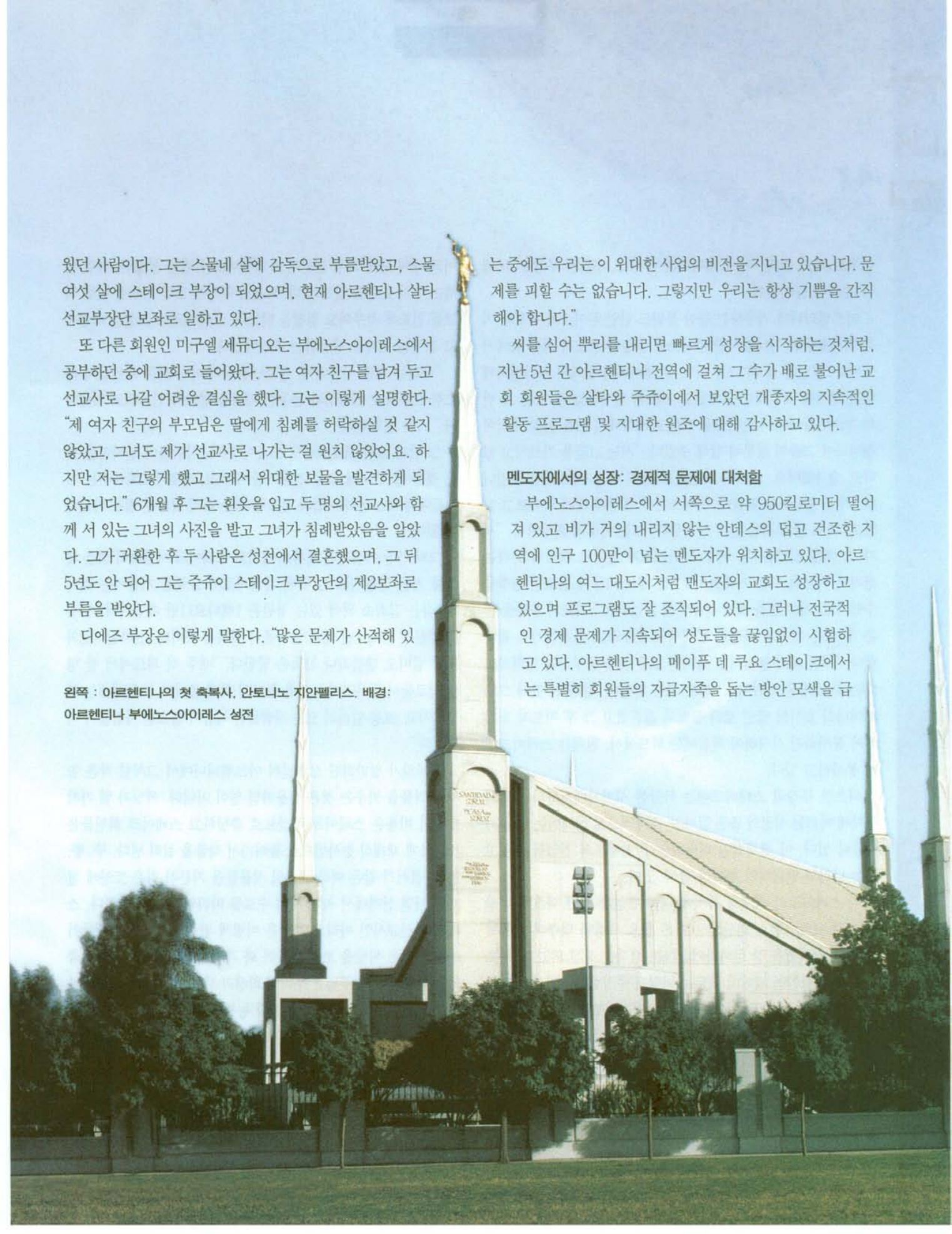
는 중에도 우리는 이 위대한 사업의 비전을 지니고 있습니다. 문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기쁨을 간직해야 합니다.”

씨를 심어 뿌리를 내리면 빠르게 성장을 시작하는 것처럼, 지난 5년 간 아르헨티나 전역에 걸쳐 그 수가 배로 불어난 교회 회원들은 살타와 주류에서 보았던 개종자의 지속적인 활동 프로그램 및 지대한 원조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

멘도자에서의 성장: 경제적 문제에 대처함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서쪽으로 약 950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안데스의 덥고 건조한 지역에 인구 100만이 넘는 멘도자가 위치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여느 대도시처럼 멘도자의 교회도 성장하고 있으며 프로그램도 잘 조직되어 있다. 그러나 전국적인 경제 문제가 지속되어 성도들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메이푸 데 쿠요 스테이크에서는 특별히 회원들의 자금자족을 돕는 방안 모색을 급

왼쪽 : 아르헨티나의 첫 축복사, 안토니노 지안벨리스. 배경: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성전





선무로 하고 있다. 이 스테이크의 루이스 와츠먼 부장은 10대에 교회에 들어왔다.

아르헨티나에 거주하는 동안 폴란드 이민 루이스의 부모는 비록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루이스를 훌륭한 종교적 환경 속에서 키웠다. 열일곱 살 때 그는 어느 날 세미나리 반에서 구약전서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는 부탁받고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는 그 반의 청소년들에게서 편안함을 느꼈고 계속해서 이른 아침 모임에 참석하여 그들의 질문에 답해 주었다. "저는 그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저를 가르쳤던 것입니다."라고 루이스는 말한다. 루이스는 물론경에 대해 알아보고 싶었고, 어느 날 그것을 읽기 시작했다. 그는 이렇게 회상한다. "제가 그 책을 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메시아다!라는 생각이 서서히 드는 거예요. 그것은 제게 너무나 심오한 영향을 주었지요. 저는 밤을 꼬박 새우면서 읽었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 그는 가족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침례받기로 결심했다. "저는 제가 놓쳤다고 생각한 모든 것을 공부하여 만회하겠다는 큰 소망을 가졌어요."라고 그는 말한다. 얼마 안 있어 그는 세미나리 교사의 딸인 로라 몰토와 결혼했고 그 후 지도자 위치에서 봉사하기 시작하여 처음에는 와드에서, 현재는 스테이크에서 봉사하고 있다.

와츠먼 부장의 스테이크에는 복잡한 시가지에서부터 외곽의 농지에 이르는 시골의 좁은 길까지, 경제적으로 허덕이는 많은 가족들이 있다. 이 경제적인 허덕임은 17퍼센트의 실업률을 갖고 있는 나라의 일반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이 스테이크의 경제적 복지에 대해 관심을 쏟던 와츠먼 부장은 교회 프로그램과 회원들의 기본 필요 사항에 맞추어 사용될 수 있는 자원들을 잘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와츠먼 부장의 장인인 제이미 몰토는 이렇게 주장한다. "전 루이스를 잘 알아요. 그는 모든 회원 개개인을 걱정하고 있어요." 가난의 근본 원인과 함께 사람들에게 우선 필요한 것들을 위주로 다각도의 해결 방법이 강구되었다.

경제적인 안정을 돕는 주요 열쇠인 교육은 사람들에게 가능한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스테이크의 회원에 한하여 더 나은 일자리를 얻게 하기 위해 와츠먼 부장은 스테

이크 내에 문맹 퇴치 전문가로 데이비드 듀란을 불렀다. 듀란 형제는 독서 교실을 열고 있다. 와츠먼 부장은 또한 성인을 위한 학교를 열도록 정부와도 협정을 맺었다. 스테이크는 교실을 제공하고 정부는 교사를 제공하는 조건이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청소년뿐만이 아닌 모든 회원들이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장과 동등한 자격을 얻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설명한다.

그 밖의 교회 프로그램도 도움이 된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는 것을 돕기 위해 고용 전문가를 부르고, 상호부조회에서는 자매들에게 바느질하는 법과 통조림 또는 음식 말리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그의 가장 야심적인 계획은 아마도 스테이크 사람들이 먹을 채소를 기를 밭을 만드는 일에 개척자로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작은 집회소 뒤에 있는 정원은 1헥타르(1만 제곱미터) 남짓한 기름진 땅에 1년 내내 작물이 자라는 곳이다. 산마틴 제2와드의 실비오 발톨리나 감독은 말한다. "매주 각 와드에서 한 명의 장로들이 돌아가며 농장을 돌보기 위해 옵니다. 그들에게는 희생이지요. 보통 일하러 오는 사람들은 식물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계화가 일반화된 오늘날의 아르헨티나에서 것처럼 작은 농지에 작물을 키우는 것은 실용적인 일이 아니다. 씨앗과 몇 가지 도구의 비용은 스테이크 예산으로 충당하고 스테이크 회원들은 지혜롭게 재래식 농사법으로 돌아가서 작물을 길러 낸다. 무, 콩, 양파, 셀러리 같은 여러 종류의 작물들을 기름진 검은 토양에 심으면 아덴 산맥에서 녹은 눈이 수로를 따라와 물을 공급한다. 스테이크 선교사인 마리오 듀란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새들이 우리가 심은 씨앗을 쪼아 먹을까 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우린 축복을 받았습시다. 주님은 우리의 희생과 사람들의 필요 사항을 알고 계십니다. 새들이 우리 주변의 농장으로서는 왔지만 이 곳에는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100킬로그램 정도로 예상했던 수확 양이 300킬로그램이나 되었어요."

이와 같은 수확은 신앙을 강화시키고 식탁을 채워 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회도 제공해 주었다. 스테이크의 소규모 농지에서 자란 다양한 종류의 채소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도 있었으므로



일부 회원들은 어떻게 농산품을 생산해 낼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제이미 몰토는 이렇게 회고한다. “와츠먼 부장은 자매들에게 호박을 주면서 물어 보셨어요, ‘이걸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모두 모여 요리법을 제시했습니다.”

와츠먼 부장의 계획의 일환으로 닭고기와 토끼고기와 더불어 그 농산품들이 감독들을 통해 궁핍한 자들에게 나누어졌다. “우

리 스테이크에서는 다른 작물도 수확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경작 방법을 가르치고 있어요.”라고 그는 말한다.

교육 수준과 경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회의 프로그램은 기꺼이 희생하는 지도자들과 회원들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들의 희생이 멘도자를 여는 지역과 다른 곳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위: 루이스 와츠먼 부장과 그의 아내 로라; 아기 마티아스; 딸 멜리사; 아들 파블로와 아리엘. 아래: 스테이크 농장에서 교대로 일하고 있는 메이루데 쿠요 스테이크에서 온 교회 회원들. 왼쪽으로부터: 볼벨 지부장단 보좌인 에두아르도 듀란; 볼벨 지부장 안드레이 조프레; 산 마틴 제 2와드 감독인 실비오 발토리나; 산 마틴 제 2와드 장로 정원희 회장인 니콜라스 무오즈; 스테이크 부장단 보좌인 오스카 사예즈; 스테이크 선교사인 마르코 듀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피어남: 제2세대의 축복

너무 좁거나 너무 넓어서 마치 미로와 같은 도로 위로 높이 솟은 고층 빌딩의 탑. 이 도시가 인구 1천 300만 이상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이다. 리오 데 라 플라타에 위치한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오늘날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강한 유럽인의 뿌리를 가진 도시이다. 여러 민족이 흥미롭게 뒤섞인 속에서 교회는 1999년 4월 현재 부에노스아이레스에 25개의 스테이크와 함께 활짝 꽃을 피우고 있다.

오래 전에 교회가 설립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회원 1세대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해 왔기 때문에 이제 강력한 회원 2세대에게 지도자의 역할을 맡길 수 있게 되었다. 호프만과 살라스 가족들의 이야기는 복음의 비전이 가져다 주는 이점을 잘 보여 준다.

호프만 가족: 초창기 제1세대 회원들. 1937년에 호프만이라는 독일 이민 부부가 복음을 받아들여 침례를 받았다. 몇 달 뒤 아들 카를로스 길레모 호프만이 태어나 말일성도로 자라났다. “그 시절 우리는 조그만 지부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저는 교회의 믿음 속에서 자랐죠. 우리는 항상 그 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라고 그가 회고한다.

그 시절에 활동적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가정에서 모임을 가진다는 것, 학교에서의 유일한 말일성도가 되는 것을 의미했으며, 성인이 되어서는 거의 혼자 담당해야 하는 여러 가지 지도자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결혼 후에 카를로스과 아내 일마 스킨즈는 자녀를 교회 안에서 키우기 위해 요구되는 희생을 감수했다. 호프만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제가 일하고 교회 부름에 봉사하는 동안 책임을 다해 준 아내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제가 자주 가족을 떠나 있었지만 아이들은 결코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가정의 밤을 가졌어요.” 현재 그의 자녀들과 손자들은 교회에서 훌륭한 활동 회원들이다

살라스 가족: 2세 지도자. 부에노스아이레스 서 스테이크 부장인 알프레도 살라스 부장은 오늘날 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본보기로서, 새로운 신앙의 비전을 갖기 위해 옛날 식으로 희생해 온 부모의 결실이다. 살라스 부장은 말

한다. “부모님은 제가 열한 살 때 교회에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바야 블랑카의 작은 지부에 참석하며 자랐어요.” 세미나리 프로그램을 소개받고 참석하고 싶었지만 그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희생하고 있던 그의 부모는 세미나리가 공부에 방해가 될 것을 염려했다. 부모님의 걱정을 덜기 위해 형과 함께 그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세미나리에 가기 위해 그들은 아침 다섯시에 일어나서 몇 블록을 달려가 버스를 잡아타곤 했다. 버스를 내리시는 또 여덟 블록을 걸으며 세미나리가 끝난 다음에는 제 시간에 학교에 닿기 위해 다시 여덟 블록을 달려가 버스를 타고 집 동네까지 되돌아와서 학교까지 줄곧 뛰어갔다. “이러한 희생은 저의 신앙을 단단히 다져 주었습니다.”라고 그는 회고한다.

그 뒤 부모님의 후원을 받아 다녀온 선교사업으로 그의 신앙은 매우 깊어졌다. 귀환한 후 그는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학교를 마치느냐, 결혼을 하느냐 하는 새로운 곤경에 직면했다. 선택은 쉬운 것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는 결혼을 택했고 7년이 지나서야 마침내 컴퓨터 공학 학위를 받게 되었다. 그는 스물여섯 살에 감독으로 부름받아 학교에 다니던 마지막 2년 동안에 그 부름에 봉사했다. 그는 계속하여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학교에 다녔다. 학문을 강조한 부모님 덕분에 오늘날 살라스 부장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회사의 지사장이 되었으며 교회 봉사를 위한 시간도 낼 수 있게 되었다.

알프레도 살라스와 같은 교회 회원 2세 및 3세대들이 지도자의 위치에 서는 기회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충실한 부모님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리토랄 스테이크, 리토랄 와드의 구스타보 베르타 감독은 1960년대 말에 침례받았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방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이 붙어 있어요. 우리는 가정의 밤을 갖고 가족 기도를 드리고 아이들에게 새 전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이처럼 교육과 선교 사업을 강조하여 성과를 올리고 있다.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인 칼로스 이 아케로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과거에는 선교사로 봉사하는 젊은

이들을 보기가 흔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대가 바뀌는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백 명의 젊은 남녀가 선교사로 나가고 있지요. 교육과 선교 목표는 말일성도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전통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비전 덕분에 구태의연한 생각이 바뀌고 있는 살타에서부터 교회 프로그램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있는 맨도자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뿌리를 내리고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다. 또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이른 새벽, 세미나리와 신학연구원의 수천

명의 학생들은 오늘도 여전히 집회소에 도착하여 열쇠로 문을 열고 미래의 희망을 꿈꾸며 복음의 빛으로 자신들의 삶을 밝히고 있다. 그 빛은 아르헨티나의 성도들에게 밝고 즐거운 날을 약속하고 있다. □

아래: 아르헨티나 서 스테이크의 알프레도 살라스 부장과 가족, 에제키엘: 노엘리아; 나탈리아; 가브리엘라(앞쪽); 아내 엘리다 살라스; 아기 데이비드. 중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리토랄 스테이크, 리토랄 와드의 구스타보 베르타 감독과 아내 미르타.



절제하는 어평

로버트 레이튼

그림: 샘 러로

나는 열세 살 난 아들이 다니는 학교로부터 인간의 성을 다루는 새로운 학과 과정을 부모들이 미리 검토하기 위한 특별 모임에 참석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학부모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업을 그대로 들어 보고 이 교과 과정을 점검하라는 것이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나는 겨우 십여 명 정도의 학부모들이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게다가 말일성도는 나밖에 없었다. 시범 수업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면서 나는 임신과 성병 예방에 관한 유의 사항이 실린 책자를 한 장 한 장 훑어 내려갔다. 나는 절제하다 혹은 그와 연관된 단어를 찾았으나 그러한 내용은 아주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을 뿐이었다.

곧 교사가 학교 간호사와 함께 도착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사는 질문이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왜 수업 자료에 절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는지 물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충격적이었다. 다른 학부모들이 말로 나를 공격한 것이다. 한 명은 나한테 “무슨 멍청한 소리냐?”고 힐난했다. 모두들 나를 비웃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절제를 미덕으로 생각한다면 현실을 너무나도 모르는 처사라고 말했다.

내가 온갖 창피를 당하고 있을 때 교사와 간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기치 않은 공격을 당하면서 나의 머리는 텅 빈 느낌이었고 대꾸할 말을 생각해 내지 못했다.

웃음이 가라앉은 뒤 교사는 학교에서는 “사실들”만을 가르치며 도덕은 가정이 가르쳐야 할 몫이라고 설명했다. 나는 20여 분 동안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다른 학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제시될 자료를 무조건 지지하고 있었다.

쉬는 시간에 뒤에 있는 도너츠를 들고 교사는 말했다.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명찰을 착용하고 다른 학부모들과 서로 어울리어 친해지라고 했다.

다른 학부모들은 모두 교실 뒤쪽으로 갔다. 그들이 명찰을 달면서 악수를 나누는 동안 나는 앉아서 깊은 생각에 빠져 들었다. 나는 수업 자료에 절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그들을 납득

시킬 논의를 불러일으키지 못한 것이 창피했다.

그리고 있는 나의 어깨에 교사가 손을 올려놓아 내 생각은 중단되었다. “레이튼 씨, 다른 분들과 어울리시죠.”

난 고맙지만 싫다고 대꾸했다.

“그럼 명찰이라도 다시겠어요? 다른 분들도 서로 알고 지내기를 바랄 겁니다.”

“그럴 것 같지 않군요.” 내가 대답했다.

“같이 어울리지 않으시겠어요?” 교사가 나를 달랬다.

그때 작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가지 말아라.” 그 목소리는 가지 말라고 분명하게 지시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냥 여기서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다시 수업이 시작되었을 때, 교사는 모든 사람이 명찰을 달아 주어서 고맙다고 했다. 그 교사는 내가 명찰을 달지 않은 사실을 무시했다. 그리고 교사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받을 수업과 똑같은 수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모두 명찰을 떼어서 뒷면을 보시면 작은 꽃이 그려진 명찰이 있을 겁니다. 어느 분이 가지셨죠?”

내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명찰을 들면서 말했다. “제가요!”

그러자 그 교사가 말했다. “좋습니다. 그 꽃은 성병을 의미합니다. 누구하고 악수를 했는지 기억 나십니까?”

그는 두 사람을 가리켰다. 다시 교사가 말했다. “좋습니다. 이 수업에 있어서 악수는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악수를 하신 두 분한테 성병이 옮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분은 또 누구하고 악수를 했습니까?”

취지는 잘 전달되었고 그녀는 이것이 학생들에게 성병이 얼마나 빨리 전염되는지를 가르쳐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모두가 악수를 했으니 우리 모두는 성병에 걸렸습니다. 이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나는 조금 전의 그 조용하고 작은 목소리를 또 들었다. “지금 말하라, 하지만 겸손하게.”

습 니 까 ?

나는 두 번째 충고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처음에 일으켰던 물

의에 대해 사과하고 훌륭한 수업에 대해서 교사를 칭찬한 후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점이 있다고 하면서 짧게 말했다.

“우리 모두가 감염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중 한 명은 절제했습니다.” □

“같이 어울리지 않으시겠어요?”

그녀가 나를 달랬다. 그때 작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가지 말아라.”

그 목소리는 분명하게 가지 말라고 지시하는 것이었다.



먼저 도움

열 일곱 살 된 셸린 메보도가 동네를 거닐다 보면 그 소녀를 보기 위해서 아이들 몰려나옵니다. 마치 “피리 부는 사나이”가 온 것처럼 말입니다.

어린이들은 그녀의 바지를 잡아당기고 껴안아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좀더 나이 든 소년들은 정중하게 말을 건넵니다. 10대 소녀들은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을 흔듭니다. 그들은 모두 그녀에게 잘 지내고 있는냐고 묻습니다.

셸린은 프랑스에 있는 작은 마을 고네스에 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소녀가 뉴스 거리가 될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린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를 연결시킴

셸린이 좋아하는 또 한 가지는 다친 사람들을 즉각적으로 치료해 주는 응급 처치 기술입니다. 가끔 응급 처치는 환자가 병원이나 다른 치료 센터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단지

상처를 싸매거나 까진 무릎을 닦아 주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셸린은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응급 처치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두 가지를 한데 연결시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프랑스 파리 이스트 스테이크 사르셀레스 지부 월계반 반원인 셸린은 설명합니다. “저희 가족은 대가족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이 많은가 봅니다. 그리고 저는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훨씬 알기 때문에 서로를 도와 주려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살았죠.”

그녀는 어렸을 때, 다른 프랑스 어린이들과 마찬가지로 여름 캠프에 가고는 했습니다. 일주일 과정의 응급 처치 훈련에 참석하곤 했는데, 그 과정은 보통 그 지역의 적십자사에서 열렸습니다. “과정이 끝날 무렵에는 항상 조사원들이, 적십자 모임에 참여하여 훈련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셸린이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알아보기 위해 두 달 정도 모임에 참석해 보았죠. 더 많은 훈련을 받았고 더 많은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셸린 메보도에게는 다른 이들을 먼저 돕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리처드 엠 롬니

사진: 필자

이제 그녀는 프랑스인들이 긴급 상황에 부르는 소방수들인 사페르-폼프야만콤이나 응급처치를 잘합니다.

목표를 향해서

셀린은 말합니다. “제가 애초에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다른 사람들을 돕고 축복해 주고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발전기록부”는 그녀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습니다. 셀린은 열아홉 살이 되기 전에 응급 처치를 배우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녀는 목표를 달성했고 자신이 배운 것을 나누길 바랍니다.

셀린은 말합니다. “저는 그것이 재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전에는 제 자신에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고 묻곤 했는데 저에게는 응급 처치가 그것을 행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 거예요.”

그녀는 훈련을 받아 자신을 도울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훈련시킵니다. 또 셀린은 상호 향사회(뮤추얼) 모임이나 청소년 대회에서, 그리고 야영 대회에서 응급 처치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인근 주택 단지의 지하실에서 운영되는 소규모 적십자 센터에서 봉사합니다. 그 곳에서 그녀는 심폐 기능 소생법(CPR)을 가르치고, 전화를 받기도 하고, 인근 어린이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기도 합니다. 그들은 치료받기 위해서 뿐 아니라 그녀와 포옹하기 위해 옵니다.

셀린은 말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반이에요. 학교에서도 응급 처치는 필

요하죠. 학교에서 사람들은 넘어지고,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질병을 갖고 있기도 해요. 간질병이 있어서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 아주 나쁘기 때문에 추울 때 특히 약해지기 쉽지요. 우리는 그들을 입혀 주고 간호해 줘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항상 도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셀린이 머리에 난 상처를 치료하는 등의 일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오른쪽) 셀린이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이웃 어린이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이고(위) 어린이들은 치료받기 위해서 뿐 아니라 그녀와 포옹하기 위해서 그녀를 찾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제가 이 기술을 배운 이유입니다.”

개개인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음

또한 셀린은 적십자사를 통해서 집 없는 사람들을 먹이고 보살피는 일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셀린이 설명합니다. “정부 기관, 보호소, 교회, 그리고 자선 단체들이 적십자사에 사람들을 위탁하기도 합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시거나 다른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은 영양 상태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셀린에게 남을 돕는 것은 하나의 욕구 이전에 삶의 방식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에요. 그것은 그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란 뜻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 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야만 해요.”

물론 홍수나 지진과 같은 자연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적십자사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셀린은 이렇게 기억한다. “얼마 전에 파리에서는 테러리스트들의 폭탄들이 폭발했었어요. 적십자사가 가벼운 상처

들을 치료해 주고 병원에 가야 할 사람들을 응급 처치해 줬습니다.”

왜 그녀에게 인사할까?

그러한 봉사 활동들을 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죠.” 셀린은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녀는 교회 활동, 학교 과제, 시험, 친구들과 어울리기 등과 같은 일상적인 일로도 바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고통당하게 그대로 두느니 제 시간을 조금 나누는 것이 좋아요. 게다가 보람을 느끼거든요. 제가 유용한 일을 한다는 사실에서 말이예요.”

바로 이러한 이유들로 셀린이 거리를 걸을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에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피리 부는 사나이”라서가 아니라 사람들과 너무

나도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셀린은 모든 어린이들이 까진 무릎과 같은 인생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녀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사람들이 그녀의 선행을 알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그녀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 사랑은 그녀에게 다시 흘러 돌아옵니다. □



대린 리스고우 · 그림: 스티브 크롬

배움의 보상

E로피를 탄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벽에 걸 상패를 탄 적이 있습니까? 비록 여러분이 그런 상을 탄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 중에서 가장 훌륭한 상을 탈 기회는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지식이죠.

지식은 시험에서 이기거나 1등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교육이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고 인쇄한다면, 지식을 추구함으로써 현세적인 면에서나 영적인 면에서 끝없이 보상이 따르게 됩니다. 재미있게 배우기 위한 제안들이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 신문을 읽는다.
- 양서를 읽는다. 도서관에 자주 간다.
- 하루 동안 어머니나 아버지의 직장에 가서 일하시는 모습을 관찰한다.

■ 가족들과 함께 유적지를 둘러본다.

■ 가능하면 컴퓨터를 사용한다. 인터넷에는 엄청난 양의 정보가 있다. 하지만 지나치지 않게 적절히 잘 판단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한다.

■ 경전, 대회 말씀, 교회 잡지, 그리고 다른 복음에 관한 책들을 공부한다.

■ 교회에 가서 그냥 참석만 하지 말고 듣고 배운 것을 실생활에 적용한다.

■ 지혜의 말씀을 지킨다. 주님께서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와 감추인 보화까지 찾으리니”(교리와 성약 89:19)라고 하셨다.

■ 교리와 성약 93편을 읽는다. 93편의 대부분은 예지, 진리, 그리고 빛에 관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28절에서 37절, 그리고 53절은 특히 그렇다.

■ 경전에서 지식과 이해력, 교육에 관한 주제를 찾아본다.

■ 어려운 과목을 정복하려 할 때 기회와 도움을 간구한다. □



그림: 그레그 케이 올슨, 아이로의 딸을 일으키시는 그리스도.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굽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마가복음 5:41-42)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미대륙의 백성들을 방문하셨을 때,
“어린 아이들을 안으시고 차례대로 저들을 축복하시며
아버지께 저들을 위하여” (니파이삼서 17:21)
간구하셨습니다. “어린이와 복음”, 14쪽 참조.

